

3834.1
24.1.9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自体 研究報告집임.
II. 収録된 內容은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邊勢力- 調查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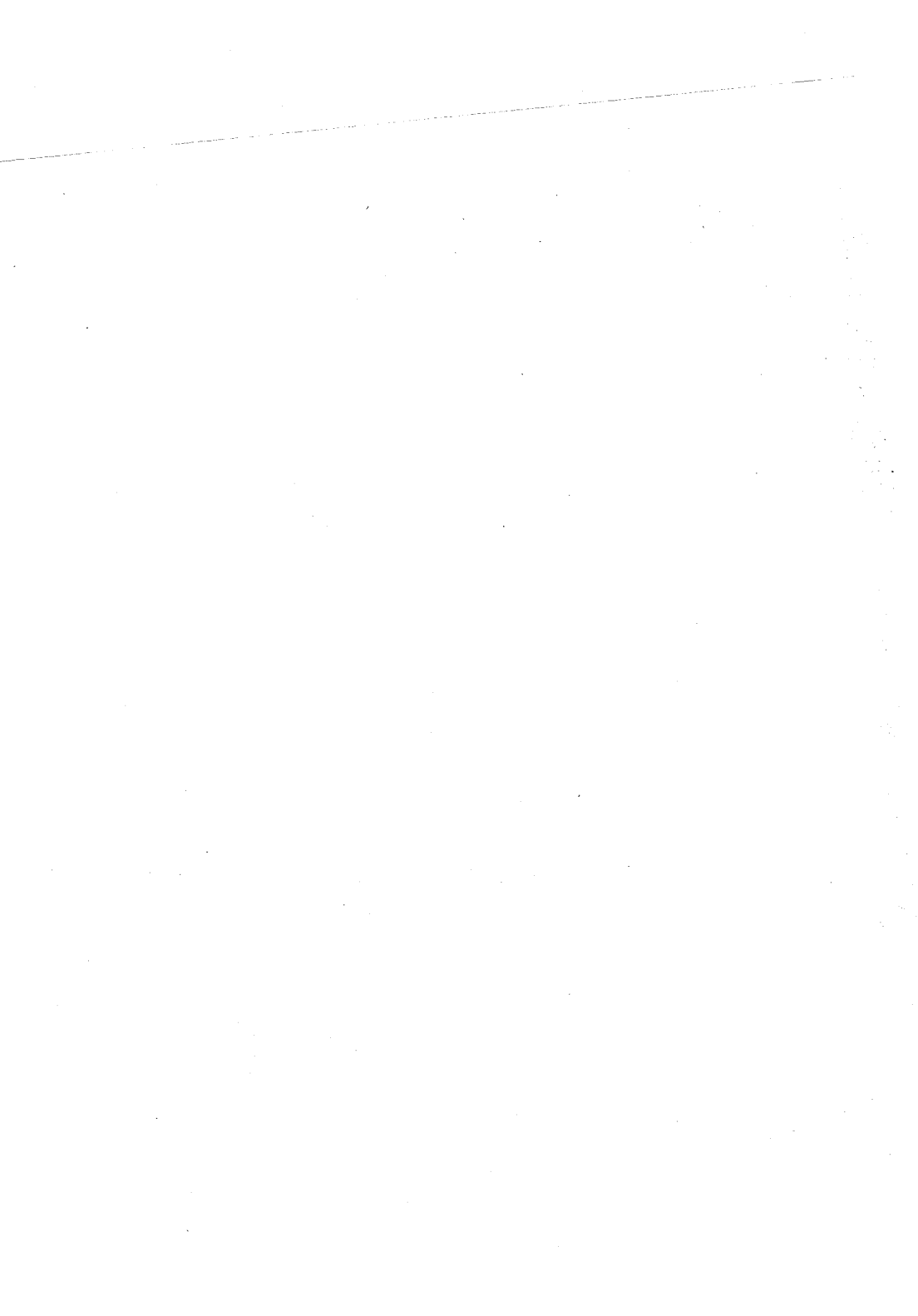
蘇 聯 의 動 向 分 析



{ 1945.12.28
1946.12.28
1947.12.28
1948.12.28

刊行責任 李 柱 熙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 | |
|----------------------------------|-----|
| I. 原文訳載 | 3 |
| 1. 平和共存과 階級鬭爭 | 5 |
| 2. 「아시아」에 平和와 安全保障을 | 17 |
| 3. 中共指導部の 外交路線의 若干의 基本方針에 對하여 | 23 |
| 4. 國際緊張緩和와 發展途上國家 | 45 |
| II. 分析 및 研究資料 | 57 |
| 1. 새로운 段階에 들어선 美·蘇關係 | 59 |
| 2. 平和共存과 階級鬭爭 | 73 |
| 3. 國際緊張緩和와 發展途上國家 | 85 |
| 4. 共產主義 哲學面에서 본 中·蘇戰爭의 可能性 | 95 |
| 5. 「아시아」集團安保體制 構想의 問題點들 | 111 |

I . 原 文 譯 載

1. 平和共存斗階級鬭爭



平和共存과 階級鬭爭

무라우다 : 73.8.22 日字 論說

筆 者 : 에프. 루이겐코

해를 거듭함에 따라 우리 党的 『레닌』主義的 戰略路線은, 國際政治面에 있어서의 平和的인 事態發展에 더욱 더 커다란 影響力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第24次 蘇聯共產黨大會에서 採擇된 平和綱領을 實踐에 옮기는 蘇聯共產黨과 蘇聯政府의 活動, 其他 社會主義諸國과 兄弟的 諸黨, 모든 平和愛護勢力의 活動은 빛나는 成果를 가져왔다.

蘇聯共產黨中央委 4月總會(1973年)는 世界情勢의 肯定的인 進展을 特徵지어 다음과 같이 指摘하였다. 即「冷戰에서부터 緊張緩和가 이루어지고 社會體制를 달리 하는 國家間的 平和共存原則이 보다 廣範圍하게 認定을 받게된 것은 兄弟的인 社會主義諸國의 立場과 團結이 強化되고 國際政治에 미치는 이들 社會主義諸國의 影響力과 權威가 成長한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1

平和共存原則이 廣範圍하게 認定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곧 資本主義國家들이 全的으로 그들의 帝國主義政策을 放棄한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帝國主義의 本質은 以前 그대로 남아 있으

며 帝國主義者들은 變化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帝國主義의 全一的인 支配의 時代는 過去의 것이 되고 말았다. 世界舞臺에 있어서의 力学關係는 平和와 社會發展, 社會主義에 有利한 方向으로 根本的인 變化를 일으키고 있다, 蘇聯의 威力的 成長과 모든 社會主義陣營의 一致團結된 힘, 社會主義陣營의 平和愛護的인 對外政策의 成功, 資本主義國家內的 進歩的인 勢力的 進出은 이들 資本主義國內의 支配集團으로 하여금 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에서 보다 現實的인 路線을 摸索하도록 強要하였다.

蘇聯과 其他 社會主義諸國의 平和的인 對外政策의 成功은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善良한 뜻을 갖는 모든 사람들은 이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冷戰」의 前線은 破壞되었으며 國際紛爭의 解決手段으로서 利用되던 帝國主義의 緊張造成과 戰爭挑發政策은 實驗的인 意義를 喪失하였다.

第二次世界大戰의 遺産을 清算한 蘇聯, 「폴란드」, 東獨의 西獨과의 條約締結은 커다란 意義를 갖고 있다. 「프랑스」와 蘇聯間의 友好·協力이 成功的으로 發展되고 있다.

「유럽」에 있어서의 集團安保構想은 커다란 支持를 받고 있다. 「유럽」安保協力會議의 第一段階會談은 「유럽」에 恒久的인 安保와 協力體制를 造成하기 爲한 實際的인 前提가 마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平和共存의 感動的이고도 生생한 本보기로 되고 있다.

1972年 5月 美·蘇頂上會談에서 調印된 『美·蘇關係를 規定한

基本文書』는 相互 對立하는 社會·經濟體制를 갖는 國家間의 平和 共存을 條約의 形態로 具體化시키고 있다. 이 基本文書가 調印됨으로써 兩國의 關係는 急進展되고 相互協力の 基礎가 마련되었다.

1973年 6月の 『엘.이.보레즈네프』의 美國訪問과 美·蘇頂上 會談의 成果는 美·蘇兩國의 利益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亦是 平和를 사랑하는 人類의 利益에도 부합되고 있다. 이것은 나아가 世界 萬國의 複雜한 懸案問題일지라도 平和共存的 原則에 立脚한 協商의 方法으로서 解決이 可能하다는 것을 例示한, 明白한 論據로 되었다.

核戰爭의 危險을 減少시키고 終局에는 이를 除去하는 問題와 實際的인 國際安全保障體制를 實現시키는데 있어서 크게 寄與한 것은 美·蘇間에 締結된 無期限의 『核戰爭 防止協定』이다.

反共主義의 『이데올로기』는 帝國主義의 侵略政策이 失敗한 事實을 認定하지 않으며 國際情勢에 나타나는 새로운 現象이 原因과 本質에 對하여 제대로 說明을 加하고 있다.

그들은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變化가 『技術時代』 - 國家間의 『이데올로기』의 差異가 漸次的으로 그 意義를 喪失하고 나아가 社會主義國家와 資本主義 國家間의 對外政策의 差異까지 消滅하게 된다는 그런 時代가 到來하였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強調하고 있다. 이것과 關聯하여 그들은 社會主義國家와 資本主義 國家間에 政治的 接觸과 經濟的 科學 技術의 協力 그리고 文化的인 紐帶가 強化되고 있는 것을 내세우고 이와 같은 諸般分野에 있어서의 協力과 紐帶強化가 이루어지는 것을 蘇聯과 其他 社會主

義國家들이 탐스=「레닌」主義에서 離脱하고 現狀의 維持를 『認定』하고 있는 結果의 所産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最近에는 現代에 있어서의 社會問題가 階級鬭爭이 없는 科學, 技術革命의 方法으로 解決이 可能하다는 것을 證明하려는 理論이 抬頭되고 있다. 그들은 科學, 技術革命이 「보르조아」社會의 社會的인 紛爭을 解決하는 데에 必妥한 모든 條件을 形成해 주리라 보고 있다.

毛澤東主義者들의 宣傳物들은 平和共存原則의 確證을 마치 『超 大強國의 陰謀』인 것 처럼 非難하고 있으며 平和納領을 實踐에 옮기기 爲해 努力하고 있는 蘇聯과 其他 社會主義國家들이, 自主와 獨立, 社會發展을 守護하는 人民들에 對한 支援을 拒絶하고 있는 것처럼 宣傳하고 있다.

이와 같은 方法으로 「보르조아」의 反共主義者들과 北京의 反 蘇主義者들은 一致協力해서 平和의 이면서도 革命的인 蘇聯의 對外 政策의 本質을 歪曲, 宣傳하기에 열중하고 있다.

「엘.이.브레즈네프」는 「끼에브」에서 行한 그의 演說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였다. 『世界의 氣象이 變化된 것은 事實이나 그렇다해서 이것이 二個의 異質的인 體制인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의 矛盾이 解消된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世界를 緊張이라는 熱病으로 감염시켜 軍防費를 擴充하고 軍備競爭을 하기 爲해 安간힘을 쓰고 있는 支配集團이 있는 國家가 存在하고 있다는 事實을 잊을수가 없다.

우리는 過去에도 그러했거니와 앞으로도 原則적으로 帝國主義의 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軍備競争을 斷乎히 反對할 것이다』

蘇聯과 其他 社會主義國家들의 對外 政策은 社會主義的이고 階級的이고 國際主義的이었으며 現在에도 그러하다. 「크리미아」에서 開催되었던 會談(蘇聯·東歐共產圈 頂上會談 = 訳者註)에 參加했던 社會主義諸國의 共產黨과 勞動黨의 指導者들은 社會主義諸國의 對外 政策의 核心은 平和와 國際的인 安全保障을 強化하고 모든 國家와 모든 大陸의 人民들의 解放戰爭과 團結을 圖謀하고 이들 國家의 自主·獨立과 그들의 運命을 그들 스스로가 決定하는 自決權을 侵害하는 干涉者들에게 打撃을 주는 政策路線을 指向하는 것이라고 強調하였다.

共同의 敵인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鬪爭에서 社會主義諸國의 一致된 團結과 모든 反帝國主義 勞力の 結束이 強化될수록 이들이 거둔 成功도 커졌다. 이의 明白한 證據로서는 「베트남」人民을 反對하는 帝國主義者들의 侵略戰爭의 中止를 들 수가 있다. 蘇聯과 其他 社會主義國家들의 아낌없는 援助와 勞動者와 民主力의 國際的인 團結에 기초를 두고 싸운 베트남人民의 英雄的인 鬪爭앞에 帝國主義는 「베트남」에서 撤收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브이.이.레닌」은 社會 經濟體制를 달리하는 國家間的 平和 共存은 革命의 全面的인 發展過程에서 提起되는 問題와 矛盾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 問題의 解決을 促進시켜 준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革命을 다른 國家들에게 浸透시키자고 主張하며 이 理論에 基礎하여 帝國主義와 임의의 協定締結에 對抗하는 사람들의 非難을 받고서도 「브이.이.레닌」은 다음과 같이 例示하였다.

『資本主義列強속에 包函되어 있는 社會主義共和國이 이와같은 見地에서 如何한 經濟的인 協定도 맺지 않았더라면 存在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레닌」全集 第 35 卷 402 P.)

「레닌」主義的 平和 共存 原則은 國家間的 懸案問題에 對한 解決手段으로서 戰爭을 拒絶하는 것이다. 全 人類의 利益에 부합되는 理想은 現在 가장 侵略的인 帝國主義集團이 옹호하였으며 지금도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異質的인 社會體制間的 모순을 戰爭의 方法으로 解決하는 것을 選擇하지 않는다. 平和, 이것은 社會主義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어서 必要不可欠한 條件이다. 長期間에 걸친 蘇聯의 積極的인 平和愛好的인 對外政策은 地上의 人民들에게 社會主義와 平和는 分離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라는 것을 證明해 주었고 證明해 주고 있다.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國家間的 平和 共存은 어떤 「브르쥬아」나 極左的인 思想이 主張하는 바의 資本主義의 不動性을 추호도 認定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平和 共存政策은 主權, 平等, 國

家國의 領土不可侵, 크든 적든間에 他國에 對한 內政不干涉, 社會經濟 및 政治體制에 對한 自由로운 選擧權保障, 未解決의 國際問題의 政治的 協商에 依한 解決을 保障하는 原則인 것이다.

階級的, 社會, 政治的 見地에서 본다면 平和共存原則은 다음과 같은 것을 意味한다. 卽 社會主義諸國의 平和的인 發展을 保障하는 條件의 造成, 他國에 對한 掠奪과 併合의 抑制, 他國에 對한 帝國主義의 內政干涉의 中止, 特히 人民들의 解放鬭爭을 彈壓하기 爲한 帝國主義者들의 『反革命輸出』의 차단, 國家間의 紛爭의 軍事力에 依한 解決의 不許等이다. 1969年 國際會議가 指摘한 대로 이 政策은 모든 形態의 착취와 壓迫을 反對하는 革命鬭爭의 利益에 부합되며 나아가 社會體制를 달리 하는 國家間의 有益한 經濟, 科學技術 및 協力の 強化를 促進시키고 있다.

蘇聯共產黨과 蘇聯政府는 이러한 平和愛好的인 對外政策을, 帝國主義의 侵略的인 政策을 反對하는 鬭爭에 對한 支援과 「프롤레타리아」的, 社會主義的, 國際主義思想의 實踐과 結合시키고 있다.

蘇聯共產黨은 自國의 國家發展에 不可缺한 條件이 성숙되어 있지 않는 國家들의 社會, 經濟的인 發展을 人爲的으로 剷革시키는 것을 原則的으로 反對하는 便에 서 있으며 社會的으로나 民族的으로나 모든 形態의 帝國主義의 壓迫을 反對하여 싸우는 勞動者階級과 勤勞大衆의 鬭爭을 援助하는 것을 義務로 삼고 있다.

平和共存은 결코 世界의 두 社会体制間의 敵對가 中止된 것을 意味하지는 않는다. 「프로레타리아」와 「브르췌아」間, 平和的인 社会主義와 帝國主義間의 鬭爭은 全 世界的인 規模에서 共產主義가 決定的으로 勝利할 때까지 持續될 것이다.

蘇聯共產黨은 두 体制間 — 資本主義와 社会主義의 階級鬭爭은 經濟, 政治, 確信컨데 「이데오로지」分野에서 계속될 것이라는데 基礎를 두고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은 이와같은 歷史적으로 不可避한 鬭爭이 戰爭과 危險한 紛爭, 無制限의 軍備競爭이 아닌 方向에서 解決이 되도록 하기 爲해 努力하고 있다.

社会主義의 敵들은 새로운 社会主義의 存在와 發展을 認定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全力을 다하여 社会主義의 立場이 強化되는 것을 妨害하고 있다. 蘇聯과 其他 社会主義國家들은 平和를 爲해 싸우며 平和의 敵인 軍事力은 降服하여 버렸다는 事實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 黨은 帝國主義의 侵略集團의 挑戰에 打擊을 加할 準備와 이에 對한 恒久的인 警覺心을 불러 일으키는데 注意를 돌리고 있다.

오늘날 帝國主義는 嚴存하고 있는 社会主義와 社会主義의 推進役인 蘇聯에 主된 打擊을 加하고 있다.

社会主義諸國의 團結을 破壞하며 社会主義內部에의 『浸透』를 呼訴하는데 帝國主義는 各별한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帝國主義者들은 이러한 方法으로 無謀하게도 社會主義陣營의 經濟
力과 軍事力의 強化를 妨害하며 社會主義諸國의 一致된 對外政策
이 國際的인 事態發展에 주는 作用의 增大를 阻害하고 있다.

反共主義의 宣傳物은 社會主義諸國의 友好, 團結을 分裂시키며 民
族主義的 傾向과 社會主義의 變種인 『民族的 共產主義』, 『社會主
義의 民族的인 『모델』』을 流布시키는데 指向되고 있다.

共產主義思想의 正當性과 不敗性을 굳게 믿고 있는 共產主義者들
은 思想的인 敵들의 公開發의 非難, 攻擊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共產主義者들은 「이데오로기」面에 있어서 相互尊重의 競爭을 支
持하고 있으나 人民들間에 敵意와 憎惡를 불러 일으키게 하고 國
際舞臺에서 中傷과 虛偽를 流布하는 等의 『神經戰』에는 徹底히
反對하고 있다. 「이데오로기」鬭爭의 問題는 國家間의 協商의 對
象이 될 수 없다.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國家間의 平和共存을 守
護하면서 蘇聯과 社會主義國家들은 共產黨의 內部問題에 干涉하려는
者들의 侵害行爲에 決定的인 打撃을 주고 있다. 蘇聯은 西方國家
와의 文化, 思想 및 情報의 交換과 人的 接觸을 達成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接觸과 交換은 各國의 主權과 法律, 習慣을 尊重하는
限度內에서 實施되어야만 人民들의 精神的 富를 涵양하는데 寄與할
것이며 人民들間의 信賴를 增進시키고 平和와 善隣思想을 고취시키
게 될 것이다.

平和共存은 資本主義의 支配에 對抗하는 階級鬭爭과 被壓迫人民
民族的 解放鬭爭의 全面的인 發展에 좋은 條件을 達成해 주고
다. 現代에 있어서 平和共存을 爲해 싸운다는 것은 人類의 窮

을 爲해 싸우는 것을 意味하며 그렇기 때문에 平和의 條件下에
서는 具體的인 社會主義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좋은 條件이 造
成되는 것이다.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國家間的 平和共存政策을 계속 옹호하면서
蘇聯과 其他 社會主義諸國들은 이미 達成된 國際情勢의 肯定的인
變化가 逆轉不可能의 것으로 되게 하기 爲해 努力하고 있다. 平
和와 人類의 發展을 爲한 이러한 鬭爭에서 「레닌」主義의 黨의
周圍에 뭉친 蘇聯人民의 아낌없는 努力, 그들의 高度의 意識水準,
蘇聯共産黨 第24次大會의 決定을 實踐에 옮기려는 決意가 크게
期待되고 있다. 世界에 미만되고 있는, 人類의 예지를 爲한 鬭
爭은 반드시 社會主義에 有利하게 問題를 解決해 줄 것이며 모든
社會生活의 分野에서 社會主義의 優越性을 証明해 줄 것이다.

2. 「아시아」에 평화와 安全保障을

아시아에 평화와 안전保障을

「루라우다」: 73.8.24 日字 社説

蘇聯共産黨과 蘇聯政府의 平和綱領의 實踐計劃에 따르는 積極的이고 合理的인 活動과, 社會主義陣營과 國際情勢의 正常化를 支持하는 모든 勢力의 一致된 努力의 結果 世界는 平和共存의 原則에 立脚해서 國家關係를 改善하는 過程으로 移行하고 있으며 緊張緩和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肯定的인 過程을 어떻게 하여 深化시킬 것인가, 이 過程을 어떻게 하면 後退시키지 않으며 이에 世界的인 性格을 賦与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蘇聯과 社會主義諸國의 現對 外政策의 中心課題의 하나로 되어있다.

蘇聯共産黨書記長 「엘.이.브레즈네프」는 「알마.따」에서 行한 그의 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強調하였다. 「緊張緩和의 범위를 全世界에 擴大시키자면 이 過程에 「아시아」를 광범위하게 參與시킨다는 것은 重要的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蘇聯領土의 3分之2가 「아시아」에 屬해있다는 우리의 國家利益에만 基礎를 두고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人類의 生活에 있어서 이 「아시아」大塊이 차지하는 位置와 平和政策에서 차지하는 「아시아」國家들의 役割과 「아시아」自身과 「아시아」人民들의 利益을 考慮에 넣고 있는 것이다.」

數10年동안 아니 한 世紀에 걸쳐서 周知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는 植民地的 掠奪의 땅이었다. 「브이.이.레닌」은 「아시아」

이 있어서의 植民地的 支配가 確固한것 같이 보였던 그 時代에
이러한 植民地的 支配의 崩괴의 不可避性과 「아시아」人民의 解放
을 予言한 바 있다. 誕生과 더불어 蘇聯政府는 「아시아」人民
들에게 平和의이고 平等한 對外政策을 宣言하였다. 新生 蘇聯共
和國은 처음으로 「이란」, 「아프카니스탄」, 「터키」, 몽고等 「아
시아」國家들과 友好條約을 맺었던 것이다. 그 後에도 蘇聯政府
는 「아시아」人民들과 正統的인 「레닌」主義的 友好關係를 의연하
게 維持해 왔다.

現代의 「아시아」는 많은 面에서 改革을 斷行하고 植民地的
길을 떠나 力動하고 있는 大陸이다. 「아시아」人民들은 獨立을
守護하며 帝國主義와 反動에 對抗하는 根本的인 社會改革을 通해
서 社會發展의 길을 가려는 決意에 넘쳐있다.

恆久的인 平和와 緊張緩和, 善隣關係는 이 過程의 成功的인 發展
을 爲해서 보다 良好한 條件을 造成해 줄 것임이 明白하다. 蘇
聯은, 「아시아」가 平和의 原則에서 살 수 있고 또 살아야한다
고 主張하며 이를 現實的으로 突戡하는 方法으로서 「아시아」集
團 安保體制가 形成되야 한다고 確信하고 있다.

同 構想을 推進하면서 蘇聯은 明白하고도 有益한 目的을 追求
하고 있다. 卽 平和共存과 善隣關係의 原則이 「아시아」諸國의
國家關係의 基礎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優先해서 國
家關係에 있어서의 힘의 使用을 中止하는 것이며 主權과 國境의
不可侵을 尊重하는 것이다. 그리고 內政不干涉과 完全한 平等과
相互 利益의 基礎위에서 經濟 및 其他 協力の 광범위한 發展을

圖謀하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集團安保體制는 다음과 같은
原則이 認定되고 嚴格히 遵守되어야 한다. 卽 各人民이 自己
스스로의 運命을 決定할 權利, 侵略에 依한 領土의 약탈의 금지,
國際紛爭의 平和的 方法에 依한 正常化, 各人民이 領有하고 있는
天然資源에 對한 權利保障과 社會, 經濟改革에 對한 權利認定이
그것이다. 이 原則中的 大部分은 이미 반둥會談의 歷史的인 決
議에서 淸명된 바 있으며 「아시아」國家들에 關聯된 一聯의 諸
文書에 反映된 바 있다.

最近 「아시아」大陸에서는 重要的 進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랜 時日을 끌며 어려웠던 越南戰은 베트남人民의 勝利로서 끝
났으며 「라오스」에 있어서는 平和回復에 關한 協定이 성취되었
다. 印支半島 國家間的 關係가 正常을 維持케 하는 方向으로
나아감에 必要한 諸般條件이 造成되었다. 韓半島에 있어서는 平
和的이고 民主主義的으로 祖國을 統一하려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
和國의 「이니시티아브」에 依해서 새로운 肯定的인 제기가 마련
되었다.

平和愛好的인 「아시아」國家들, 特別히 「아시아」에서 卓越한 地
位를 차지하고 있는 印度와 같은 偉大한 國家가 「아시아」情勢
에 커다란 影響력을 미치고 있다. 蘇聯과 印度間的 關係는 蘇
聯, 印度 友好協力條約의 바탕위에서 보다 安定된 性格을 띠고 있다.

蘇聯, 日本間的 關係改善과, 平和的인 關係正常化 그리고 광범위
한 經濟協力の 進展이 「아시아」의 平和에 利益을 가져다주고 있다.
現在 集團安保問題가 實際的인 討議가 廣調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의 境遇를 보아 「아시아」集團 安保体制의 構想을 「아시아」大陸에 定着시킬 수 있다고 確信한다.

勿論 「아시아」集團 安保体制을 形成한다는 것은 容易한 問題가 아니다. 더구나 「아시아」에는 孤立을 維持하고 「아시아」의 國家關係에 不信任을 造成하는데서 利益을 取하는 勢力이 남아있기 때문에 事情은 더욱 그렇다. 大國主義的 「소비니즘」의 思考를 하고 있는 北京의 指導部는 「아시아」集團安保体制構想의 平和共存과 魯隣原則을 威脅으로 간주하고 이를 積極的으로 反對하고 있다. 毛次東主義者들은 한 때 中共이 蘇聯과 함께 「아시아」集團安保를 提唱한 바가 있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同 構想이 中共을 『전제』하거나 『包圍』하려는 意圖를 갖고 있다고 警告하고 있다.

蘇聯政府는 거듭해서 「아시아」集團安保体制에는 中共도 同等하게 參與할 수 있다고 強調한 바 있다.

「아시아」의 集團安保를 確保함에 있어서는 「아시아」諸國의 共同努力이 要求되고 있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아시아」集團安保에 寄與해 줄 것을 呼訴하는 바이다. 蘇聯의 立場을 말하면 우리는 이 「아시아」集團安保를 推進함에 있어서 「아시아」諸國들과 積極的으로 協力할 用意을 갖고 있다.

「아시아」集團安保体制의 積極的인 推進은 「아시아」國家들의 利益에 부합되며 世界情勢를 健全하게 만드는데 새롭고도 重巽한 進展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3. 中共指導部の 外交路線의 若干의
基本方針에 對하여

中共指導部外交路線의 若干의 基本方針에 對하여

「뿌라우다」 : 73.8.26 日字 論說
筆 者 : 「아렉산드로브」

오늘날 世界는 長期間에 걸쳐서 持續되어온 冷戰에서부터 社会·政治體制를 달리하는 國家間的 平和共存原則에 基礎를 둔 緊張緩和에로의 移行이 더욱 明確하고 具體적인 모습을 띠고 나타나고 있다. 現在의 變化는 今後의 國際舞台의 力學關係에 있어서 平和와 進歩 그리고 社会主義에 有利하게 作用하고 있다. 成長하는 經濟적인 潜在力과 모든 進歩勢力의 支持에 基礎하고 있는 蘇聯과 其他 社会主義諸國의 積極적이고 平和愛好的인 對外政策은 肯定的인 國際情勢의 進展에 強力한 자극을 주고 있다. 地上의 모든 人民들은 社会主義와 平和는 分離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確信하고 있다. 蘇聯共產黨 第24次大會에서 採擇된 平和綱領은 善良한 意志를 갖는 모든 사람들의 贊成과 支持를 받고 있다.

平和綱領에는 蘇聯의 對外政策의 階級的, 社会主義的 特徵이 具體적으로 表現되어있으며 「레닌」主義的 平和共存的 原則으로 一貫되어 있다.

지난번에 開催되었던 「크리미야」會談에서 發表된 共同聲明에서 兄弟的 黨들의 指導者들은 蘇聯共產黨의 「레닌」主義的 對外政策을 높이 評價하였으며 또한 國際的 意義를 갖는 이 對外政策을 實現함에 있어서 蘇聯共產黨書記長 「엔 · 이 · 브레즈네프」가

거는 個人的인 功績을 높이 評價한 바 있다.

이 蘇聯의 對外政策은 모든 人民의 根本的인 利益에 부합되고 있다. 蘇聯政府는 앞으로 蘇聯共產黨 第24次大會에서 決定한 길을 따라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友好同盟國들인 社會主義諸國과의 關係를 더욱 強化할 것이다. 이들 國家와의 團結과 協力を 強化하는 것은 蘇聯共產黨과 蘇聯政府의 對外活動의 가장 重要한 方向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植民主義의 基盤에서 解放된 國家들과의 紐帶를 強化할 것이며 平和와 民族解放, 民主主義와 社會主義를 爲해 싸우는 모든 人民들에게 援助를 提供할 것이다. 蘇聯政府는 過去에도 그러했거니와 앞으로도 帝國主義勢力의 侵略的인 음모에 決定的인 打撲을 줄 것이며 緊張緩和를 反對하면서 『冷戰』을 復活시키며 軍備競爭을 支持하는 者들과 人民들 間에 敵意와 不信을 助長하는 者들에게 斷乎한 打撲을 加할 것이다.

地上에는 아직도 緊張과 爆發的인 危險要因이 적지않게 存在하고 있다. 近東에 있어서는 紛爭이 解決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印支半島에 있어서는 銃聲이 끊이지 않고 있다.

恒久的인 平和를 向해 나아가는 人類는 『冷戰』의 타성뿐만 아니라 人類의 共同目標인 平和事業에 害毒을 끼치는 特定勢力의 抵抗도 克服하지 않으면 안된다. 國際的인 緊張緩和와 軍備競爭의 中止를 反對하는 敵들 속에는 中共의 指導者들도 包含되어 있다. 지난 4월에 開催된 蘇聯共產黨中央委總會는 다음과 같이 指摘하였다. 『社會主義諸國의 團結과 世界共產主義運動을 反對하며 國際緊

張緩和를 爲해 邁進하는 平和愛好國家들과 人民들의 努力에 對抗하는 中共指導부의 강인한 鬭爭과 反蘇主義路線은 國際社會主義의 平和事業에 毒藥을 끼치고 있다. 』

1

中共指導부의 對外政策路線에는 理論面에 있어서나 實際面에서나 階級的 「맑스·레닌」主義의 原則을 파괴하려는 意圖가 明白히 나타나 있다.

이미 50年前에 「브이·이·레닌」은, 10月革命以後의 「러시아」에 있어서 모든 人民들 및 國家들과의 關係는 『社會主義 運動과 蘇聯政府에 反對하는 帝國主義國家들이 少數集團과의 鬭爭에 依해서 決定된다. ……萬一에 우리가 이것을 간과한다면 어떠한 民族主義的 또는 植民主義的 問題도 쉽게 提起할 수 있다. 이것이 멀리 멀어져있는 世界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問題에 關한 것일지라도. 』라고 考示한 바 있다.

이 「레닌」의 敎示는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基礎로 되어 있다. 이 敎示는 1957年, 1960年과 1969年의 世界共產黨大會에서 共同으로 採擇된 文書에 反映되어 있다.

現在 中共의 指導부는, 中·小國家들과 두 『超大強國』인 美·蘇와의 『紛爭』이 歷史的 發展過程을 決定하는 것처럼 主張하는 「브르조아」의 反動的인 거짓 「이데올로기」를 信奉하고 있다. 手澤東主義者들은 여기에서 『두개의 中間地域』이라는 無意未한

체제를 참가시키고 있다. 이것에 依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第一地域)의 被壓迫人民들은 『西와 東』(第二地域)의 몇몇 重要한 國家들과 共通의인 利害關係』를 갖고 있을뿐만 아니라 『超大強國』에 對抗하는 鬭爭을 展開함에 있어서 『이 地域과 聯合해야하며 그것이 可能하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毛澤東集團들은 世界에서 最初로 社會主義國家가 된 蘇聯을 自己들의 重要한 敵으로 내세우려고 試圖하고 있다.

毛澤東主義者들은, 그들의 反蘇主義를 正當化하며 社會主義諸國의 團結과 結果에 對한 파괴活動을 合理化하고 平和的인 共產主義運動과 民族解放鬭爭을 反對하며 나아가 反動的인 帝國主義勢力과 無原則한 블럭』形成을 하고있는데 對한 구실을 찾기 爲해 『理論的』인 摸索을 하고 있다. 同時에 中共을 核武器를 갖는 『超大強國』으로 만들기 爲해서 現 中共의 指導者들은 여러 나라와 人民들의 運命을 決定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毛澤東主義者들은 自己들의 「해계모니」的인 目的을 達成하는데 있어서 蘇聯과 其他 社會主義諸國을 基本的인 障礙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毛澤東集團들은 무엇보다도 優先해서 社會主義陣營의 團結을 動搖시키고 結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北京은 社會主義陣營에 民族主義的 傾向을 扶植시키고 社會主義國家 相互를 對抗하기 爲해서는 手段 方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파괴活動을 하는데 있어서 毛澤東主義者들은 資本主義의 復活을 期待하는 亡命者들과 結合하고 있으며 各階各層의 反社會主義的 分子들을 利用하며 계속해서 社會主義國家인 東獨에 反對하여 싸우고 있는 西獨의 極端的

인 民族主義的 集團과 結託하고 있으며 『美國의 소리』와 『自由
「유법」』의 放送局과 接觸을 하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社會主義諸國은 광범위하고 複合的인 社會主義的 經濟統合計劃을 成功的으로 實踐하고 있다. 지난번 「부라하」에서 開催되었던 經濟相互協助會議가 特히 이를 잘 證明하고 있다. 「크리미야」에서 開催되었던 會談(蘇聯·東獨頂上會談= 記者註)에서 兄弟的인 여러 黨의 指導者들은 보다 果敢하고 신속하고도 情勢的으로 經濟發展問題들을 大規模的으로 共同解決해야 할 必要性을 새롭게 다짐하였던 것이다. 中共의 指導者들은 社會主義的 協調를 圖謀하는 國際機構인 「코메콘」과 「와르샤와」條約機構에 對한 露骨的인 反對運動을 展開하고 있다.

北京의 指導者들은 그들에 依해 展開되고 있는 總力戰으로서도 모든 共產黨을 對抗해서 싸우기에는 力不足하다는 事實이 明白해지자 지금에 와서는 共產黨들을 分離시켜 이들로 하여금 毛澤東主義的 對外政策에 對한 非難을 拒絶토록하고 國際共產主義運動과 이에 根本的으로 矛盾되는 毛澤東主義에 對해서 中立的인 立場을 取하도록 呼訴하고 있다. 同時에 毛澤東集團들은 絶對多數인 「맑스·레닌」主義的 黨들에게 과격한 敵對的인 政策을 實施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브르조아」의 黨들과의 紐帶를 擴大하면서 中共의 指導部는 共產黨員에 反對하는 鬭爭에서 그들과 協力할 用意가 있음을 公開的으로 또는 野卑한 形態로 나타내고 있다.

毛澤東主義者들은 階級的인 社會主義政策을 拒絶하면서 所謂 『第

『第三世界』의 國家들과의 關係에 注意를 돌리고 있다. 中共의 指導 部는 무엇보다도 民族解放鬪爭을 社會主義陣營으로부터 分離시키려 고 努力하고 있다.

北京은 自身을 『中·小國家들』의 利益保護者로 自處하고 있으며 『第三世界』의 指導者로 묘사하고 있다. 이를 爲해 中共의 指導 者들은, 中共은 社會主義陣營에 屬해 있는 것이 아니라 『第三世界』에 屬해 있는 發展途上國家라고 宣稱하고 中共의 勞動者들이 獲得한 社會·經濟的 戰 取物에 暗影까지 던지고 있다. 지난번에 있었던 「운크타-드」 (「유엔」 貿易發 展機關)에서 中華人民共和國의 代表는 秘書課에 中共을 社會主義 國家들의 명부에서 빼고 發展途上國家들의 명부에 넣어달라고 要求 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發展途上國家들의 利益을 옹호한다 고 크게 宣傳함으로써 그들 國家를 自己들의 利益追求에 利用하고 社會主義世界로 부터 分離시키기 爲해 取해지고 있다.

毛澤東主義者들의 패권주의的 慾望은 무엇보다도 東南「아시아」와 南「아시아」에 있어서의 그들의 움직임에서 잘 証明되고 있 다. 이 慾望가운데는 北京의 비호아래 南南「아시아」의 一聯의 國家들로 辯成되는 軍事·政治「블럭」을 形成 하려는 오래前부터 내려오는 構想도 包含되어 있다. 『第三世界』의 發展途上國家들의 面前에서 印度의 平和愛好的인 政策을 내리 각고 이나라를 國際적으로 孤立하려는 北京의 變함 없는 對外政 策路線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벵그라데슈」의 人民이 自由와 獨立을 爭取하기 爲한 鬪爭을 展開했던 決定的인 時期에 北京이

이들을 反對하는 極端的인 反動과 軍部勢力과 聯合했던 事實로서는 說明이 된다.

여러해 동안 毛澤東主義者들은 「버마」, 「스리·랑카」, 「말레이 지어」 및 이 地域의 其他 國家들에 對해서 二重的인 「플레이」를 實施하였다. 이 地域의 國家들에서 自己들의 排권주의的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 毛澤東主義者들은 임의의 手段을 구사하였다. 파괴 活動을 展開하고 毛澤東主義에 추종하는 「구름」을 形成하는 것에서 부터 北京이 自己들의 政策實現의 武器로 삼고 있는 分離主義的 傾向을 이들 國家間에 扶植하는 일에 이르기까지의, 北京의 政策路線의 方向은, 印度, 「버마」, 「스리·랑카」의 革命的 民主主義勢力의 安定化를 妨害하며 東南「아시아」와 南「아시아」에서 不安한 狀況을 造成하며 흐린 물속에서 고기를 낚으며 自己들의 目的을 達成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中共指導部の 對外政策의 路線이 階級的인 社會主義政策과 社會主義的 國際主義原則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資本主義國家들과 密接한 關聯을 맺고있다는 事實이 明確히 證明하고 있다. 毛澤東主義者들은,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革命的』鬭爭, 資本主義國家와는 어떠한 協定締結도 『不容納한다는 原則』,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國家와의 平和共存政策의 日和見主義的인 性格等에 對해서 偽裝된 左傾的 批判을 加함으로써 蘇聯과 世界共產主義運動에 對抗하는 鬭爭(벌써 15年以上 계속되었다)을 始終 은폐하여왔다. 現在에 있어서는 偽裝된 左傾的 言辭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毛澤東主義

의 指導者들은 한 때 소위 높이 宣傳하였던 그들의 綱領에 남아있는 帝國主義에 關한 部分마저 本質的으로 拒否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社會主義諸國에 對抗해서 帝國主義와 더불어 政治的인 封鎖의 길을 擇하고 있다.

中共의 資本主義世界와의 광범위한 紐帶強化에로의 轉換은 1970 年代初에 이루어졌다. 平和共存 原則에 基礎를 둔 資本主義國家와의 關係發展은 自然的인 發展過程의 所産이다. 그러나 北京은 資本主義國家와의 關係發展을, 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를 狹小(縮小)시키는 바탕 위에서 圖謀하고 있다. 특히 北京은 그들의 對外貿易의 方向을 資本主義市場으로 돌리고 있다.

萬一에 中共이 國際關係를 擴大시킴에 있어서 世界共產主義의 立場을 強化시키는 問題에 對하여 배려를 하고 社會·政治體制를 달리는 國家들과의 平和共存의 「레닌」主義的 原則에 立脚하고 있었다면 中共의 國際關係의 擴大政策은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緊張緩和와 資本主義世界의 侵略的인 反動勢力的 孤立化, 世界社會主義陣營과 民族解放運動의 立場強化를 爲해 遞進하는 社會主義諸國의 政治路線原則을 反對하면서 毛澤東의 指導部는 嚴酷的인 反蘇主義의 立場을 取하는 帝國主義의 極端的인 反動勢력과 聯合하는 政策을 公明的으로 實施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侵略的이고도 報復主義的인 政策을 標榜하고 社會發展에 對抗해서 『冷戰』을 復活시키려는 政策을 계속 支持하고 있다. 從前에 毛澤東主義者들은 蘇聯을 攻擊할때 언제나 社會主義國家들과 資本主義國家들 間의 相互協力을 들먹이며 資本主義國家들과의 平和共存의 不可能性을 說明하려고 하였다면 現在 그들의 論理는 自利心을 많은 反蘇主義를 가장 優越的인 帝國主義集團과의 公明的인 聯合으로 유도하고 있다. 1964年 2월에 있었던 우리黨의 中央委總會는 다음 같이 指摘한 바 있다. 『正當치 못한 「레닌」主義的인 길을 가면서 中共의 指導者들은 帝國主義의 反動的인 好戰分子들과 結託하고 있다』 그러하였음에도 北京은 이警告를 묵살해 버렸다.

社會主義의 根本的인 利益과, 蘇聯과 其他 社會主義諸國의 利益에 呼應해서 地上의 平和愛好勢力은 世界政治에 있어서의 肯定的인 傾向을 發展시키고 強化시키는 積極的인 鬭爭을 展開하고 있으며 이 鬭爭은 肯定的인 結果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유럽」安保協議會가 自己事業을 하기 始作하였으며 「아시아」集團 安保體制構想이 더욱 많은 支持者를 획득하고 있다. 「유엔」總會에서의 軍備경정을 止揚하기 爲한 一聯의 決議가 採択되었다. 重大한 國際問題에 對하여 調和있는 解決을 摸索하기 爲해 이루어지고 있는 소련과 美國, 「프랑스」, 서독 및 其他 國家들간의 關係改善은 앞으로의 發展을 期約해두고 있다. 世界的인 核戰爭의 威脅으로부터 人類를 解放하는데 커다란 寄與가 이루어졌다.

「크리미야」에서 있었던 社會主義諸國의 勞動黨과 共産黨의 指導者會議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지금은 國際舞臺에 있어서의 肯定的인 進展을 安定시키고 締結된 協定과 條約을 實現可能한 內容으로 充實케 하고 恒久的인 平和에 寄與할 수 있는 風土를 造成해야 할 重要한 時期인 것이다.

全력을 다하여 蘇聯의 平和綱領의 聲望을 失墜시키려는 北京指導部의 거친 不協和音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것이 北京이 推進하고 있는 對外政策이 追求하는 方向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北京은 「유럽」에서 造成된 肯定的인 進展의 장애物을 設置하려고 努力하고 있으며 이 大陸에 있어서 社會主義

陣營의 立場을 弱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中共의 對「유럽」政策의 全般的인 形態는 『1~2 超대强国』에 對抗하는 鬭爭에 關한 세계의 實際的인 構想이 밝혀지기 始作한 1970년에 이루어졌다. 周恩來는 西方國家의 代表者와의 會談에서 거듭해서 말하기를 『西方國家의 能力은 西方에 있어서 蘇聯을 견제하는 要素가 될것이다』라고 하였다.

西獨의 복수주의集團을 격려하면서 北京은 이와 함께 蘇聯, 「포랜드」人民共和國의 西獨과의 條約締結을 反對하였다.

北京은 第二次世界大戰의 遺産과 「유럽」에 形成되어 있는 現國境線을 의족의 狀態로 두고자 努力하고 있다.

北京은 「유럽」安協協議會에 暗影을 던지려고 試圖하고 있으며 本會談의 進行을 極度로 抑制하려는 「유럽」諸國의 特定勢力을 支持하고 있다. 中共의 指導者들은 NATO와 『NATO主義의 原則』에 諷辭를 보내고 있다.

北大西洋軍事 力의 指導者들이, 「유럽」의 軍備와 兵力을 縮小시키자는 輿論의 要求로 더욱 더 困境에 處해있을 때 北京은 美軍의 「유럽」駐屯을 支持하였다. 얼마전 周恩來는 『워싱턴·포스트』紙를 通해서 西獨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을 減縮시키자는 意見에 同調하고 있는 美政治家들의 어리석음을 非難하였다. 그는 「모스크바는 安全保障에 關해서 西方世界에 거긋 感情을 浸透시키려고 努力하고 있다』라고 古典的인 戰略家「스타일」로 宣言하였다. 周恩來는 西方의 新聞雜誌의 平和愛好的인 政策을 反對

하고 NATO會員國의 國防費의 減縮을 反對하도록 선전하고 있으며 中共과 西歐의 資本主義諸國과의 經濟, 政治, 軍事的인 聯合을 支持하도록 교사하고 있다. 그는 全「유럽」의 協力체제의 形成보다는 『大西洋의 一致團結』을 願하고 있다. 심지어 周恩來는 <새大西洋憲章>이 反對主義的 傾向을 갖게한다는 條件을 붙이고 『새大西洋憲章』에 贊成하였다.

「유럽」大陸의 모든 懸案問題에 있어서 北京은 變함없이 NATO와 資本主義國家의 『共同市場』의 편을 支持하였다. 西獨新聞『노이제·레인·짜이퉁』紙는 『中共의 對外政策의 原理는 粗野할 程度로 單純하다. 蘇聯사람에게 有益한 것은 中共사람에게는 損롭고 反面 蘇聯사람에게 損로운 것은 中共사람에게는 좋은 것이다.』라고 指摘하였다.

이와 같은 方法으로 中共의 指導者들은, 東歐人民들이 爭取한 逆轉不可能의 社會主義 成果를 認定하길 拒否하고 「유럽」大陸에 있어서의 社會主義陣營의 影響力強化를 反對하는 힘의 立場에 서려고 하고 있다. 共産黨과 勞動黨들은 反動的인 報復主義努力과 立場을 같이 하는 中共의 이러한 政治的 路線을 抑制하고 있다.

지난 5월에 開催되었던 「프랑스」共産黨中央委員會는 「現 中共 共産黨指導者들의 對外政策은 과거에나 現在에 있어서나 反社會主義를 根本으로 하고 있다. 中共의 指導者들은 大國主義·民族主義的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 광분하고 있다. 例를 들면 「유럽」의 統合이 現在의 狀況으로 보아 蘇聯을 銳意 敵對視하는 資本主義國家의 戰略의 所産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西歐資本主義國家들

의 統濟的, 政治的, 및 軍事的 統合體인 『小유럽』獨占體의 열렬한 擁護자가 되어 있다.』라고 指摘하였다.

西方의 報復主義者들의 代表者들이 北京의 對外政策에 拍手を 보내고 그들의 目的達成을 爲해 北京의 對外政策을 利用하려고 企圖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事實이 못된다. 例를 들자면 西獨의 指導者 『울트라·스트라우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蘇聯과 中共間의 敵對的 對立』은 『유럽』을 爲해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人인 우리에게 있어서 『말갱이의 危機』는 蘇聯의 危機이지 中共의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利益과 中共의 利益은 部分的으로, 一時的으로 合致되고 있다.』

『第三世界』國家들의 戰略에 따라서 毛澤東主義者들은, 中共人民을 包含하여 이 地域의 모든 人民들의 利益을 가져오게 하는 集團安保體制를 形成하자는 提議에 對하여 中傷·謀略을 하고 있다. 이러한 肯定的인 『아시아티브』에 對해서 中共의 指導部는, 周恩來가 美國會議員 『폴다』와 『복사』에게 宣稱한 바대로 『아시아』에 있어서의 美軍의 駐留를 承認하는 件으로써 對抗하고 있다. 北京은 事實上 美·日安保條約과 極東에 있어서의 美國의 『核우산』提供을 支持하고 있다.

毛澤東主義 指導者들의 對外政策의 厚顏無恥한 二重性은 近東關係에서 特히 잘 나타나고 있다. 『아랍人民들의 鬪爭과의 聯繫性』을 支持한다고 宣稱하고서도 『이스라엘』이 強占한 땅을 반환할 것을 要求한 第27次 『유엔』총회의 決議案의 支持를 拒否하였다.

北京의 「이스라엘」의 領土擴張論者들에 對한 道德·政治的 支持는, 「地中海는 沿岸國家들의 것」이라는, 北京이 展開하고 있는 「캠페인」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캠페인」의 뒤에는 이 地域에 있어서 NATO의 地位를 維持하려는 意圖가 은폐되어 있다.

NATO의 侵略的 「구류」이 「시오니즘」, 人種差別主義 및 植民主義 간제의 中心地가 되어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바다.

東京의 支配集團속에 幻想을 불어넣으면서 北京은, 日本을 「아시아」의 모든 問題를 共同으로 解決하려는 『恒久的인 파트너』로서 選托하고 있다. 同時에 北京의 指導部는 日本의 가장 광폭한 報復主義者들과 結託하고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蘇聯에 對하여 領土를 要求하도록 교사하고 日本으로 하여금 社會主義陣營과의 平和共存을 拒否하도록 하기 爲해 온갖 手段方法을 다 하고 있다.

毛沢東主義의 立場이 平和愛好的인 人民들의 根本的인 利益을 完全히 背反하고 있다는 것은 第27次「유엔」總會에서 있는 國際關係에 있어서의 武力不行使, 核武器의 永久的인 不使用決議案에 對한 投票에서 表現되었다. 當面問題로서 蘇聯의 提議에 依해 提案된 이 決議案은 贊成 75, 反對 4 (中共, 「알바니아」, 「몰류갈」, 「아랍」共)로 承認되었다. 中共의 代表들은, 모든 國家들에게 軍事紛爭, 民族主義, 植民主義 및 外國의 支配를 清算하고 緊張緩和을 爲한 努力을 增加시키며 世界의 여러 地域에 있어서의 集團安保體制를 強化시켜야할 것임을 呼訴하는 內容의 國際安全保障의 強化에 關한 宣言文採決決議案審議에서 孤立狀態에 빠졌다. 蘇聯을 비롯하

여 사회主義陣營의 「구름」, 「아시아」·「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諸國에 依해 提議된 이 決意案에 反對投票를 한 나라로는 오직 「몰투갈」과 「아랍」共의 두 나라 뿐이었다. (이때 中共代表는 投票에 參席하지 않았다)

北京의 指導部는 『1963年부터 어떠한 核武器 擴散防止 條約에도 參與하지 않겠다』고 宣言하고 있다. 北京의 指導部는 5大核保有國會議를 開催하자는 蘇聯의 提議를 反對하는 소란스러운 「캄페인」을 展開하였으며 平和軍縮會談의 準備를 妨害하고 있으며 美·蘇의 核武器制限交渉에 攻勢를 加하고 있다. 北京은 化·生武器禁止措施에 對하여 反對示威를 하고 있다.

大氣圈과 地上에서의 核實驗을 定期的으로 實施하면서 毛沢東主義者들은 「유엔」總회에서 熱核武器의 實驗停止緊急性에 關한 決議案에 反對投票를 하였다. 毛沢東主義者들이 國際社會의 여러 層과 世界人民에게 核武器中止에 對하여 批判을 加하도록 要求를 하며 얼마 전에 大氣圈에서 水素爆彈을 實驗한 것은 바로 이러한 中共의 오만불손한 態도와 密接히 關聯되어 있는 것이다.

毛沢東主義의 指導部의 冷笑主義와 人類의 根本利益을 無視하는 態도는 最近에 있었던 美國會議員團과의 會談時 周恩來의 聲明에 依해서 暴露되었다. 周恩來는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美·蘇間에 締結된 核戰爭防止條約에 對해서 『모두가 종이 조각에 不過하다』라고 宣言하였다. 戰爭과 平和問題에 對하여 北京이 이러한 立場을 取하는 것은 週然한 事實이 아니다. 이것은 毛沢東主義者들이 오래前부터 戰爭을 國際舞台에서 그들의 政治的인 目的을 達成하기

為한 手段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緣由하는 것이다.

이것과 關聯하여 外國의 많은 觀測者들은 또다시, 1957년 毛沢東이 一定한 政治的인 目的을 達成하기 為해서는 人類의 半數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고 宣言한 바를 回想하고 있다.

對內宣傳을 함에 있어서 中共의 指導部는 戰爭恐怖零幽氣를 造成하면서 다음과 같이 確言하고 있다. 『戰爭을 回避할 수 있다는 理論은 危險한 思想이다. 戰爭可避는 不可能하다. 現情勢下에서 戰爭을 回避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見解와 激烈한 鬪爭을 展開해야 한다.』

때문에 戰爭과 平和, 平和共存問題에 對한 毛沢東의 거짓 없는 立場은 人民들의 利益과 希望에 배치되고 있음을 雄弁的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中共指導부의 現代의 가장 切實한 問題에 對한 態度는 社會主義諸國, 國際共產主義運動과 民族解放을 為해 싸우는 戰鬪員들 그리고 世界의 緊張緩和을 指向하며 侵略的인 帝國主義勢力을 抑制하려는 平和愛好的인 勢力의 努力에 矛盾되고 있다.

3

社會主義와 自由, 社會發展勢力의 結束된 力量을 파괴하여 世界緊張緩和의 進展에 「브레이크」를 걸며 나아가 矛盾對立, 反目과 渾沌을 惹起시키고 있는 毛沢東主義의 對外活動은 社會主義陣營, 世界共產主義運動과 모든 平和愛好的인 社會主義의 憤怒를 惹起시키고 있

으며 이들로부터 決定的인 打擊을 받고 있다.

中共의 指導部가 그들의 패권主義의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 一時的인 同伴勢力으로 計算하고 있는 帝國主義의 反動的이고 民族主義的인 勢力에 關해 言及하자면 이 勢力들도 中共人民에게 敵對되는 利己主義的인 目的 達成에 根拠하고 있다. 그들이 中共을 反스主義와 反共産主義로 強化시키려는데 있다함은 論難의 余地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中共을 帝國主義의 經濟的 技術的인 從屬 關係下에 묶어두려고 하고 있다. 同時에 大端히 긴 眼目을 갖는 西方의 政治的 集團들은 中共이 蘇聯과 其他 社會主義諸國을 反對하는 鬭爭을 그들과 共同으로 展開하려는 構想을 갖고 있다. 이 集團들은 中共의 指導者들로 하여금 새로운 國際紛爭을 惹起케 하고 世界를 戰爭에 陷入시키게 하도록 公開的으로 不安을 造成하고 警告를 하고 있다. 北京이 그들의 탐욕적인 利益追求에 基礎하여 『第三 世界』의 國家들에 영향력을 扶植하려는 意圖와 努力은 民族解放勢力內에 根拠있는 緊張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北京의 急激한 右傾, 그들의 公開的인 反蘇·反社會主義的인 活動, 反動的인 政府와 政黨과의 無原則한 政治的 結託, 이 모든 것은 現 中共의 指導者들이 追求하는 目的이 發展途上國家人民들의 利益과는 容納될 수 없다는 것을 證明해주고 있다.

民族的인 自主獨立과 社會發展을 爲해서 帝國主義와 毛澤東主義의 宣傳을 反對하여 싸우는 人民들은 自己들의 經驗에 비추어, 蘇聯과 其他 社會主義國家들의 援助와 그들과의 協력이 發展途上國家들의 自主性을 強化해주는 重要한 要素로 되며 領土擴張主義者들이 基礎

하고 있는 領土擴張主義를 막는 보루가 되어있음을 確信하고 있다.

4

蘇聯은 다른 兄弟의인 國家들과 마찬가지로 原則的인 基礎 위에서 中共을 包含한 國際關係의 正常化를 始終一貫하게 支持하고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을 보아도 中共이 마치 『北으로 부러의 危脅』이 實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떠드는 諷刺가 事實無根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971年 蘇聯政府는 中華人民共和國에게 核武器를 包含한 軍事力의 不使用條約을 締結하자고 提議한 바 있다. 蘇聯側은 累次 國境問題를 正常化하기 爲한 建設的인 提議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저런 여러가지의 提議는 아무런 深刻한 理由도 없이 中共側에 依해서 拒否를 當해왔던 것이다.

中共의 指導部는 소련의 提議를 받아들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이를 討議하려 하지도 않으며 國際關係의 正常化에 對抗하면서 蘇聯에 野卑한 非難·攻訐을 加하고 蘇聯 領土의 廣大한 部分에 對한 根柢없는 要求를 하고 있다. 北京이 帝國主義의 出版物 『울트라』와 共同으로 떠들어댄 『北으로 부러의 危脅』과 『蘇聯의 豫防核戰爭計劃』에 國한 中傷이 미리 計劃된 虛偽인이 完全하게 暴露되었다. 毛沢東主義者들이 이렇듯 怪奇한 中傷·謀略을 必要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現在 中共이 겪고있는 國內의 難局으로부터 그리고 毛沢東主義者들의 主觀主義的인 政策路線이 가져오게 한 悲慘한 結果로부터 中共人民들의 눈을 閃閃로 돌리기 爲한 데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中傷은 戰爭恐怖空氣를 고취시키며 核武裝競爭의 論
挺로 삼기 爲해서와 社會主義陣營의 平和愛好的인 對外政策의 名聲
을 내리찍기 爲해서 그리고 그들이 帝國主義의 反動에 接近하고
있는 데에 對한 正當性을 主張하기 爲해 利用되고 있는 것이다.
蘇聯共產黨은, 中共의 猖獗 民族主義의 復活과 社會主義의 發展은 蘇
聯, 其他社會主義諸國과 모든 共產主義運動을 反對하는 鬭爭을 展開
하는 길에서가 아니라 그들과 聯合하고 兄弟的인 協力을 圖謀하는
가운데서 達成되고 保障된다고 累次 指摘하였다.

「엘」·「이」·「브레즈네프」는 今年 8月 15日 「알마·따」에
서 行한 演說에서 蘇聯은 中華人民共和國과 友好的인 關係를 맺고
싶다고 宣言하였다. 『過去 우리는 蘇聯과 中共間의 關係正常化
를 爲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限의 모든 努力을 다 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事業에서 刮目할만한 進展을 가져오게
하는데 成功하지 못하였다. 그 理由는 單 한가지 反蘇主義에 基
礎를 두고 있는 中共指導部의 政策이 社會主義諸國의 活動을 파괴
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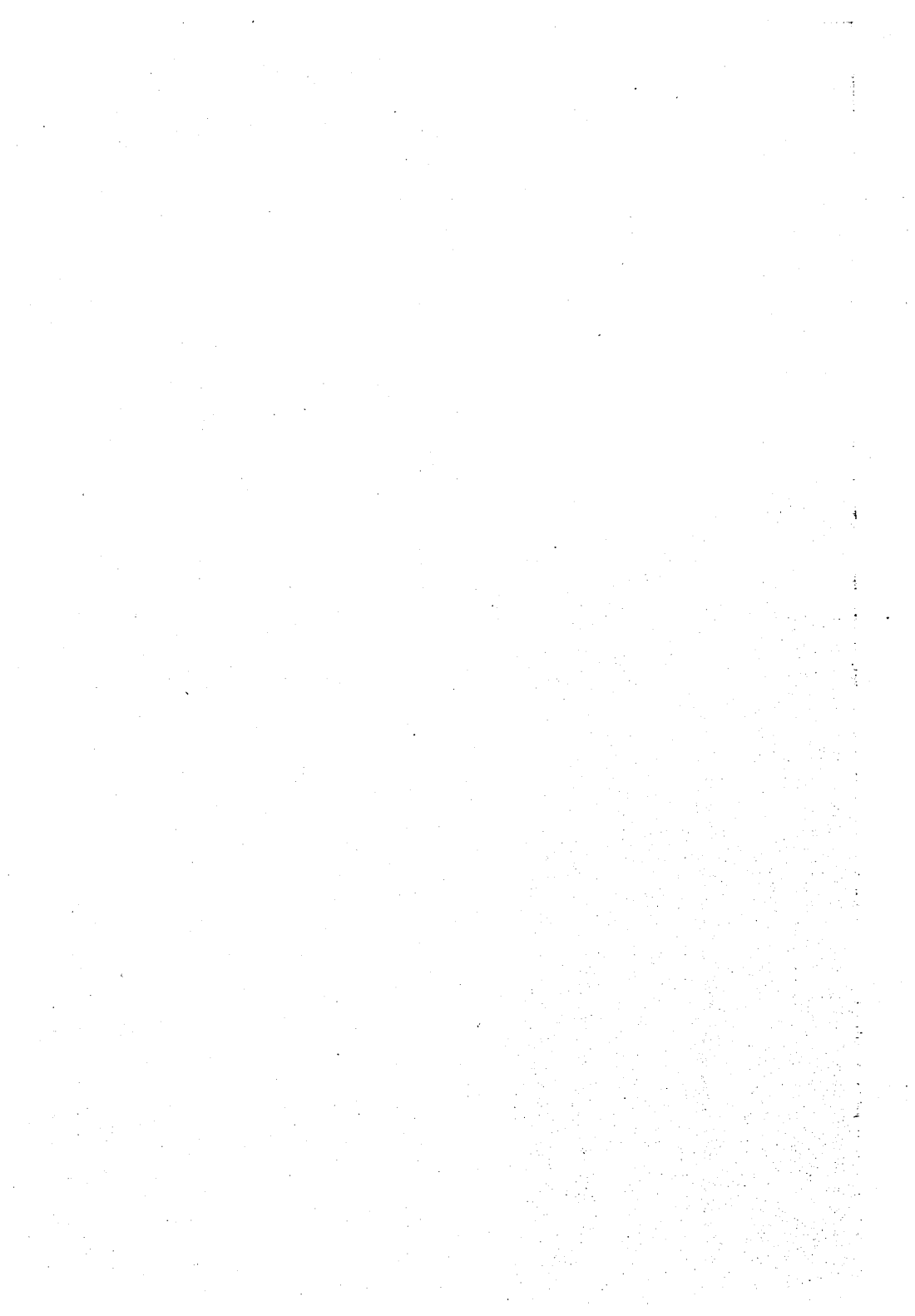
短刀直入의으로 말하면 中共과 蘇聯, 其他 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
改善은, 中共의 指導部가 相互尊重, 主權尊重, 內政不干涉, 社會主義
國家의 利益에 대한 침해중지의 諸原則을 준수하는 境遇에 依해서
만 가능한 것이다.

毛澤東主義를 「레닌」主義의 潮流에 敵對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우리의 「레닌」主義의 對外政策은 毛沢東主義의 理論과 實踐에 決定的인 打撃을 加하면서 蘇聯과 中共과의 國家關係의 正常化에 臨할 準備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蘇聯共產黨第 24次 大會의 路線은 不變인채로 남아 있다.

歷史의 客觀的인 論理, 社會主義建設에서 거둔 兄弟國家들의 成果, 國際情勢의 緊張緩화를 為해 싸우는 地上의 平和愛好勢力의 成功은 科學的인 社會主義의 優越性을 確證해주고 있으며 人間生活과 現代의 社會發展의 모든 領域에서 提起되는 諸問題를 解決함에 있어서 毛沢東主義의 理論과 實踐은 完全히 破産되고 있음을 確信시켜주고 있다.

4. 國際緊張緩和と 發展途上國家



國際緊張緩和와 發展途上國家

「뿌라우다」: 73.8.30 日字 論說
著 者: 「까·부루엔즈」

最近 近年 동안 國際情勢가 제아무리 國際關係의 커다란 事件 들로서 充滿되고 力動的이라 하더라도 現在의 여러變化는 同等한 性格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國家間的 平和共存原則의 確立을 促進한 蘇聯 共産黨 書記長 「엘·이·브레즈네프」의 美國, 西獨, 「프랑스」 訪問과 越南戰의 中止, 지난 半世紀 동안 두 번씩이나 火藥庫의 구실을 하였던 「유럽」大陸의 關係正常化의 急進展等, 이 모든것은 緊張緩和의 方向에 커다란 肯定的인 進展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世界에서 現在 進行되고 있는 變化는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的 關係分野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變化는 亦是 發展途上國家에도 影響을 주고 있으며 그들의 利益에도 確實히 부합되고 있다.

다만 政治的으로는 미숙한 사람들이나 明白히 敵意를 갖는 者들만이 『마치 發展途上國家들의 희생위에서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에 某種의 協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심각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問題는 긴장완화, 互體間의 軍事的인 對決의 배제, 互體間의 경쟁을 戰爭이 아닌 平和的인 舞臺에 集中시키기 爲한 것에 있다. 萬一에 發展途上國들의 眞正한 利益이 무엇인가를 고려한다면 世界舞臺에서 그들이 階級間的 새로운 力学關係의 優位를 利用하고 두 世界의 武力 對決이 排除된다는 것은 그들의 利益에 完全히 부합되는 것이 될 것이다.

더우기 發展途上國家들의 人民들에게는 發展되고 있는 緊張緩和와 關聯하여 이를 환영해야 할 또 다른 理由를 갖고 있는 것이다.

『冷戰』과 冷戰의 雰囲気는 國際關係에 있어서 反民主主義的인 傾向과 發展途上國家들의 權利를 侵害하는 氣運을 培養해주는 原因이 되고 있다.

帝國主義者들은 그들의 特權을 保護하고 植民地를 획득하려는 意圖을 은폐하기 爲하여 發展途上國家들을 『冷戰』의 양으로 만 들고 있다. 이렇게 하여 帝國主義는 植民地 또는 半植民地의 隷屬 으로부터 解放을 爭取하려는 人民들에게 軍事의인 介入을 때때로 試圖하고 있는 것이다. 『冷戰』 時期에 『第三世界』의 地域에 는 民族解放鬭爭을 反對하는 鬭爭을 實施함에 있어서 帝國主義의 道具의 役割을 하는 軍事「블럭」이 形成되었다.

緊張緩和는 이러한 關係에도 현저한 變化를 이르고 있다. 帝國 主義는 그들 特有的 新植民主主義的인 本性을 지닌채 남아 있다. 『冷戰』으로부터의 離脫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힘을 찬 양하는 모든 種類의 「독트린」이 붕괴됨에 따라 帝國主義의 強壓 政策에 대한 對抗이 發露되고 親植民主主義와 植民主主義의 잔재 要素에 대항하는 鬭爭이 促進되고 있다.

變化하고 있는 國際氣候는 國際緊張의 잔재를 清算하는 데에 보 다 有利한 터전을 마련해 주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베트남」 人民의 勝利는, 소련과 其他 社會主義國家들의 全面的인 援助에 기초 를 둔 「베트」人民이 帝國主義에 對抗하는 英雄的인 鬭爭을 展開

한 데서 온 結果이다. 또한 越南戰의 中止가 緊張緩和를 擴大시키는데 가로 놓인 커다란 장애물을 除去하였다는 事實로 알려져 있다. 紛爭이 가장 危險한 事態로 發展할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冷戰』은 分明히 「이스라엘」의 支配集團에게 侵略路線의 実行을 容易하게 만들어 주었다. 한편 越南戰이 끝난 지금에 있어서 國際社會의 各階各層이 非妥協的인 態度로 近東의 事態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決코 偶然한 事實이 아니라, 全世界에는 近東의 問題를 正當하게 解決할 것을 要求하는 壓力이 強化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支配集團의 孤立이 深化되고 있다.

國際緊張의 緩和가 進展되고 『冷戰』을 週해 達成하려던 反共主義的 反共主義의 神話가 破綻됨으로써 民族解放鬪爭을 抑制하기 爲해 마련된 帝國主義의 軍事·政治「블럭」과 地域協力體制에는 危險的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대한 明白한 例로서는 SEATO를 들 수 가 있다. 「파키스탄」이 公式的으로 이 機構로부터의 脫退를 宣言하였다. 1973年 6月, 이미 오래前부터 事實上 GEATO의 軍事的인 活動에 參與를 하지 않고 있는 「프랑스」가 다음해부터는 GEATO基金을 納入하지 않겠다는 뜻을 表明하였다. 帝國主義를 支持하는 또 다른 協力機構인 ASPAC의 建物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 機構의 定期閣僚理事會가 延期됨으로써 여러 「아시아」諸國의 出版物은 이를 ASPAC의 붕괴의 始初라고 評價하고 있다.

帝國主義集團들이 CENTO의 機能을 強化시키려고 間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CENTO는 困境에 瀕해 있다. 이와같은 努力은 明白히 人民들의 安穩에 威脅을 加하고 있으며 이것은 國際情勢의 肯定的인 變化에 逆行하는 處事인 것이다.

美洲機構가 深刻한 危機를 겪고 있다. 時代의 潮流는 이 機構의 帝國主義的인 性格을 파괴하고 있다. 이 機構의 帝國主義的인 不公平性에 反對하는 사람들의 의견의 소리가 더욱 힘차게 들리고 있으며 이에 相應해서 이 機構의 性格轉換이 이루어 지고 있다.

發展途上國家에 있어서 經濟的인 面에 있어서의 새로운 段階으로의 飛躍이 이들 國家에 經濟的인 利益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는 重要性에 對해서는 새삼 論할 必要가 없다. 社會主義 國家와 資本主義 國家間의 差別待遇를 排除한 自由로운 經濟的인 協力の 發展은, 全世界的인 經濟的인 關係를 正常化하고 經濟的인 面에서의 不平等한 現象을 克服하는 것을 促進시키는 要因이다. 또한 社會主義 國家와 資本主義 國家間의 科學·技術協力은 發展途上 國家人民들의 利益에도 부합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重要한 科學·技術의 成果를 公開的으로 導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其他 여러分野에 있어서의 原子力의 平和的인 利用같은 것이 그것이다. 肯定的인 結果를 낳도록 經濟를 發展시키는데 있어서 軍備競爭中止 問題가 가장 深刻한 것으로 되어 있다. 現 國際生活의 變化는 軍備競爭 中止問題에 對한 解決을 容易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소련과 其他 社會主義諸國이 이러한 方向에서 마련한 總路線은 緊張緩和를 크게 進展시키고 있으며 이 路線은 發展途上 國家의

國家, 社會活動家들과 有力한 黨과 社會團體, 言論機關의 指導部의 好意的인 反應을 받고 있는 것이다.

印度의 日刊紙『에인스트립』은 『國際的인 緊張緩和는 超大強國들에게 有益할 뿐만 아니라 『第三世界』의 國家들에게도 有益하다. 그것은 두 超大強國中的의 한 나라가 가장 強力한 社會主義國家인 소련으로 되어 있다는 事實로 證明이 된다』라고 쓰고 있다.

「엥그라데슈」의 與黨인 人民聯盟의 第1 副議長 「코르반·아리」는 「우리는 全世界의 이름으로 소련共産黨 書記長 「넬·이·브레즈네프」와 「닉슨」 美大統領이 署名한 協定을 환영하는 바이다, 『第三世界』의 自立과 緊張緩和의 保障을 爲해서 蘇聯과 蘇聯의 指導者들이 取한 措施에 모든 人民들은 感謝하고 있다.』라고 宣言한 바 있다.

「에질트」의 民族戰線의 中央委員會 書記長 「아브넬·파타흐·이스마일」은, 最近 蘇聯共産黨 中央委員會와 蘇聯政府가 取한 커다란 對外政策的 措置는, 鬭爭을 하고 있는 「아랍」諸國의 人民들을 包含하여 全世界人民들의 根本的인 利益에 부합된다 라고 表現하였다.

『第三世界』國家內的의 영향력 있는 社會團體들의 이러한 態度表明은, 發展途上國家와의 關係에서 陰謀를 꾸미고 있는 特定한 帝國主義集團과 北京의 指導部 그리고 發展途上國家들內的의 反動들의 世界에 차지하는 意義는 큰 것이다. 이들 集團들은 發展途上國家들의 社會에 緊張緩和에 逆行하는 思想을 浸透시키며 民族解放勢力內에 蘇聯과

社會主義諸國에 對한 不信思想을 불러일으키고 『第三世界』에 對한 社會主義의 權威를 弱화시키려고 願하고 있다.

發展途上國家에는 長期間에 걸쳐서 世界舞台에서 兩陣營間에 對하여 兩다리 政策을 標榜하는 것을 自己들의 政治哲學의 定論의 하나로 간주하고 편협한 民族主義的인 思考를 갖고 때때로 영향력을 發揮하는 集團들이 存在하고 있다. 또 이들 國家에는 말하자면 國際氣候의 變化의 참된 意味를 現在로서는 完全하게 認識하지 못하고 說解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集團이 存在하고 있다. 帝國主義와 帝國主義를 贊成하는 集團들은 우선 이러한 勢力과 集團들에게 世界的인 緊張緩和의 進展이 發展途上國家들의 利益에 배치되는 것처럼 認識시키기 爲해 온갖 거짓 思想을 집요하게 고취시키고 있으며 社會主義陣營의 役割과 支援을 減少시키고 있다.

특히 北京의 指導部는 世界平和와 人民을 爲한 安全保障을 反對하는 陰謀를 꾸미는데 있어서 추악한 役割을 하고 있다. 毛沢東 主義의 指導者들은 根拠도 없이 國際緊張緩和가 그들의 大國主義的이며 霸權主義的 目的追求에 배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中共의 指導者들은 帝國主義와 帝國主義를 찬성하는 反動들의 利益과 一致되는 路線을 推進하면서 수시로 그들과 직접적으로 結託하며 國際關係의 正常化 進展에 障礙가 되도록 온갖 妨害工作을 展開하고 現存하는 緊張要因을 除去하는 일에 反對하고 있다. 이를 爲해 그들은 民族解放運動과 發展途上國家들의 利益을 冷談하기도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다.

勿論 北京의 指導部는 그들의 음모를 公開的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들은, 그들의 意圖를 『두 超大強국이 共謀』하고 있다는 空論的인 「캠 케인」을 요란스럽게 展開하는 것으로서 煙幕을 치고 있다. 北京의 煽動員들은 『中 小』國家들에게 『超大強국』(事實上에 있어서는 소련)에 對抗하기 爲하여 聯合해야 한다고 常套的으로 呼訴를 하고 있다. 이럴 때마다 그들은 皆에 指摘한 國家들의 口實은 中共을 中心으로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中共의 比호를 받아야 한다고 暗示를 하고 있다.

中共의 指導部는 「아시아」集團安保体制의 形成을 狂暴하게 反對하고 있다. 그들은 印度支那半島와 東南「아시아」의 當面問題의 正常化와 正當한 解決을 反對하기 爲한 運動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은 自身을 中 小 國家들의 利益守護者로 내세우면서 實은 이들 國家들을 희생시켜가며 帝國主義의 列強들과 한편이 될 用處가 있다고 強調하고 있다.

더우기 北京은 近東에 있어서의 緊張을 더욱 첨예화시키려고 試圖하고 있는 것이다. 北京은 「아랍」人民들과 蘇聯과의 友好關係를 弱화시키려는 挑戰的인 立場을 明白히 取하고 있으며 「아랍」人民들을 帝國主義의 한 나라에 내맡기려고 하는 것이다.

毛沢東主義者들은, 그들의 발판을 「알지」에서 개퇴되는 비동맹회의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帝國主義者들 및 그들과 結託하고 있는 非同盟國家內的 反動集團들과 步調를 같이 하면서 非同盟國家들의 反帝國主義的인 運動을 鈍化시키며 非同盟國家들을

社会主義黨에 對抗하도록 만들기 爲해 努力하고 있다.

國際緊張緩和을 反對하는 毛沢東主義者들의 파괴적인 活動은 그들이 期待했던 바 그대로 發展途上國家들의 呼応을 얻지 못하고 있음이 確證되고 있다. 그들은 自己들의 利害追求에 현혹되어 發展途上國家들의 指導者들과 社會가 進展되고 있는 國際情勢의 變化를 正當하게 - 이變化가 그들 國家들의 利益에 一致된다고 - 評價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음과 그들이 (發展途上國)이 中共의 保護를 願하지 않고 自立的 길로 나아가려고 決心하고 있음을 過少評價하고 있다.

蘇聯과 其他 모든 社会主義諸國의 對外政策은 戰爭의 威脅을 除去하고 모든 國家들(中·小國家를 가리지 않고)의 安全保障을 強化하는 데에 目標을 두고 있다. 이 對外政策은 自主, 獨立을 堅固히 하고 主權尊重과 모든 國家의 領土에 對한 不可侵의 原則을 確保하는데에 指向되고 있다. 蘇聯과 其他 社会主義國家들은 國家間的 平等한 關係維持와 相互協力을 強化하는 것을 對外政策의 課業으로 삼고 있다. 「크리미아」에서 開催되었던 社会主義陣營의 共產黨, 勞動黨의 指導者會議에서 強調된 바와 같이 平和와 國際間的 安全保障의 追求는, 모든 大陸과 모든 人民들의 解放鬪爭과의 連帶성을 維持하고 그들의 自由와 獨立, 自決權을 侵害하는 者들에게 打撃을 주는 일과 同等하게 蘇聯과 其他 社会主義國家들의 對外政策에서 不可分離의 構成部分으로 되어 있다.

國際情勢의 變化,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國家間的 平和共存의 進展

은, 民族解放 鬪爭을 中止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帝國主義의 社會的, 民族的 壓迫이라는 客觀的 原因 때문에 惹起되고 있는 民族解放 鬪爭은 帝國主義의 迫害가 있는 限 持續될 것이다. 階級間的 力學關係의 變化를 反映한 結果로서 나타나고 있는 國際情勢의 肯定的인 變化는 民族解放 鬪爭에 有利한 條件을 造成해 주고 있다.

蘇聯은 國際關係에서 爭取한 成果에 逆轉不可能의 性格을 賦與하며 앞으로는 平和戰略을 一貫해서 推進할 것이다. 蘇聯은, 蘇聯共產黨中央委員會 政治局과 蘇聯最高會議 幹部會議의 決議와 蘇聯邦內閣의 「엘·이·브레즈네프」同志의 訪美에 對한 決算에서 強調한 바 대로 帝國主義勢力의 任意的 陰謀에 對하여 打擊을 加할 것이다.

緊張緩和가 造成된 現情勢下에서도 蘇聯은 過去와 마찬가지로 社會的, 民族的, 人種的 迫害를 反對하여 싸우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다. 蘇聯은 「이스라엘」의 侵略에 依해서 發生한 結果를 清算하며 「유엔」安保理와 「유엔」總회의 決議에 따라 紛爭을 平和的으로 解決하기 爲해 싸우는 「아랍」人民들의 正義의 鬪爭을 積極 支援하고 있다. 蘇聯은 「앙고라」, 「가니아」, 「모잠비크」, 「잠비아」, 南「아프리카」의 愛國主義者들에게 全面的인 支援을 계속할 것이다.

蘇聯은, 發展途上國家들이 自主性を 強化하고 社會發展의 길을 따라 나아가며 共同的인 平和事業에 參與하고 對外關係에 있어서의 不平等關係를 克服하려는 努力을 支持하면서 이들 國家들과의 政治的 紐帶를 擴大하고 있다. 蘇聯은 新民族主義와 은폐된 形態로서

新生國家들에 대하여 內政干渉을 하는 現狀을 斷乎히 反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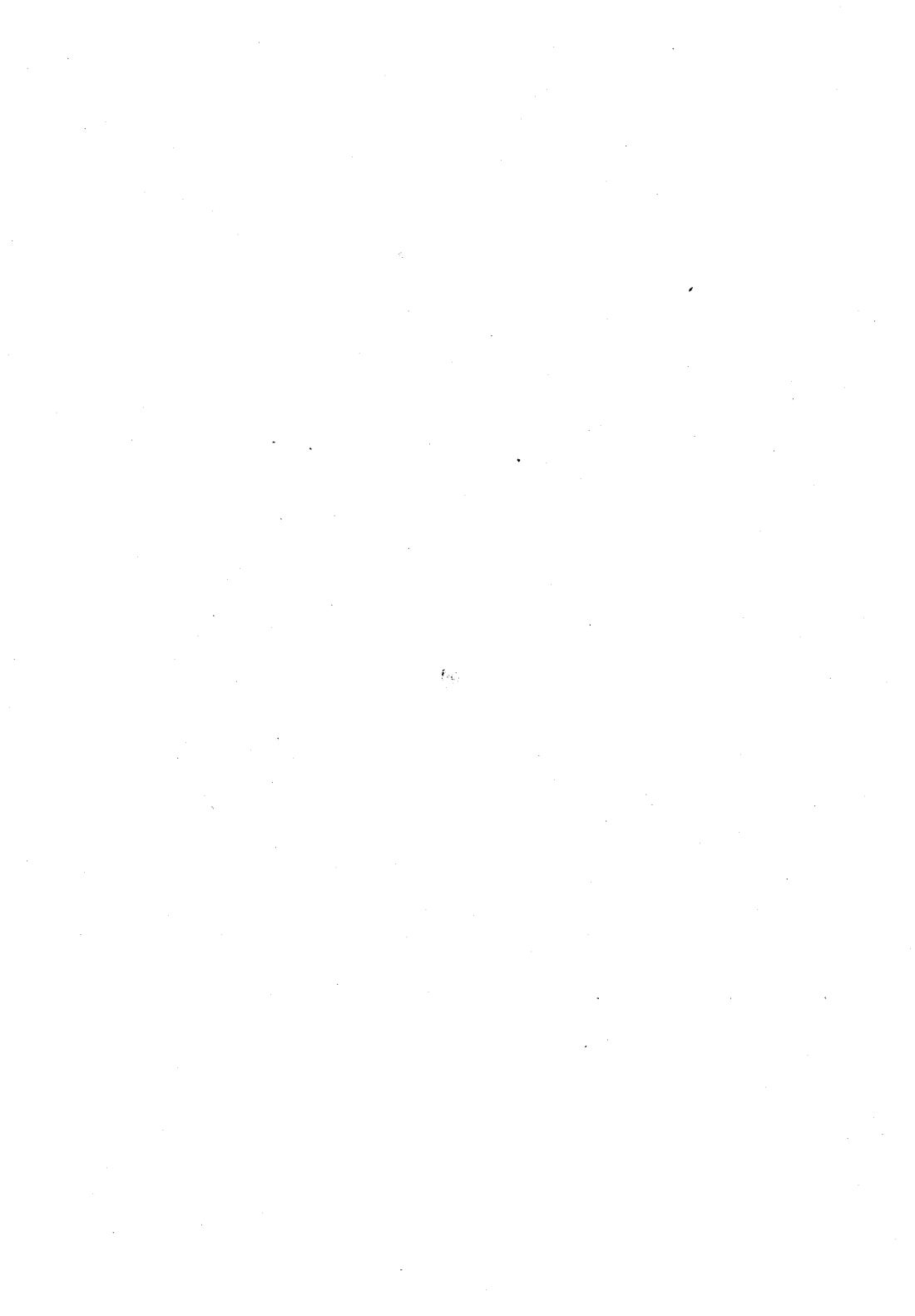
蘇聯과 新生國家間的 相互 經濟協力은 確固한 土台위에서 있으며, 좋은 展望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經濟協力은, 社會·經濟의 內容으로 보나 追求하는 政治的인 指向性으로 보나 資本主義國家의 援助와는 根本的으로 性格을 달리 하고 있다. 印度首相 「이 간디」는 最近 社會主義國家들의 經濟協力的 進歩的인 性格에 대하여 注意를 喚起시킨 바 있다. 同首相은 “社會主義國家들은 資本主義國家들과는 다르게 經濟的인 自立을 成就하는데 不可欠한 國家産業部門이 發展되도록 援助를 하고 있다.” 라고 強調하였던 것이다.

國際間的 緊張緩和가 造成되고 있는 狀況下에서도 蘇聯의 對外政策에는 人民들의 民族解放鬭爭과 反帝國主義鬭爭을 支援하는 「레닌」主義 原則의 特徵이 確固不動하게 남아 있다. 「엘·이·브레즈네프」는 이렇게 宣言하였다. 『한 例로서 社會主義 陣營의 人民들과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人民들은 國際力學關係의 場에 있어서 平和常備軍의 重要한 部分을 形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恒常 銘心하고 있다. 우리들은 벌써 많은 事業을 하였다. 우리는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에는 흠어짐이 없을 것임을 確信하고 있다. 蘇聯에 대해서 言及하자면 蘇聯은 우리들의 協力的 強化와 發展을 圖謀하기 爲해 不可欠한 모든 措施를 講究할 意圖를 갖고 있다』

世界의 社會主義陣營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前進함으로써 發展途上國家들은 民族의 참된 解放과 그들의 正當한 利益과 權利를 爭取할 수 있으며 緊張緩和를 強化하여 國際關係의 肯定的인 變化를 逆轉不可能의 것으로 確固히 하기 爲한 鬭爭에 커다란 寄與를 할 수 있을 것이다.

II. 分析 및 研究資料

1. 새로운 段階에 들어선 美·蘇關係



| | |
|------|-------------------|
| 出處日時 | 1973. 7. 22. |
| 出 處 | 뿌 라우 다 |
| 題 目 |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美·蘇關係 |

1. 內容要約

가. 美·蘇頂上會談의 意義

(1) 美·蘇關係改善의 定着化

1972. 5.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美·蘇頂上會談에서 始
작을 본 美·蘇關係改善이 이번 「브레즈네프」의 美國訪問
으로 定着化되고 더욱 發展되었다.

(2) 具體的인 成果

(가) 이번 頂上會談에서 10 個의 새로운 協定과 文書가 調印
되었다.

(나) 1972. 5. 美·蘇頂上會談以後 14 個月間에 20 個以上の
協定이 締結되었으며 이 中에서 가장 중요한 協定으로서는

- 美·蘇關係를 規定한 基本文書
- 核戰爭 防止協定
- 攻擊用 戰略武器制限 協商原則등이다.

(다) 지난 1年間에 美·蘇間의 貿易量이 3倍로 增加되었다.

(3) 美·蘇關係 改善의 本質

그 本質은 冷戰에서 平和共存에로의 移行이다.

平和共存은 다음과 같은 것을 主內容으로 하고 있다.

(가) 戰爭의 防止

(나) 緊張緩和

(다) 政治關係의 正常化

(라) 紛爭의 平和的 解決

(마) 相互協力の 強化

(4) 이번 頂上會談의 特徵

美·蘇關係改善에서 이룩한 큰 貢獻은 兩國間에 어떠한

의혹이나 疑心도 存在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러한 前進

은 모든 人民과 世界의 平和에 寄與하게 될 것이다.

나. 社會主義陣營의 成長

(1) 刀學關係의 變化

(가) 世界의 刀學關係가 社會主義 陣營에 有利하게 變轉되고

있다는 事實이 特別한 意義를 갖는다.

(나) 이러한 刀學關係의 變化가 資本主義國家들로 하여금 變化

를 일으키겠음 強要를 하였다. 이것이 「유럽」에서는 물론

世界의 다른 여러 地域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重要한

變化의 하나이다.

(2) 蘇聯의 平和共存政策의 役割

(가) 蘇聯과 다른 社会主义諸國의 絶對的인 平和愛好的 对外政策 路線이 이러한 緊張緩和를 가져 오게 한 重要的 原因으로 되어 있다.

(나) 社会主义陣營의 力量은 過去 어느때 보다도 強해졌으며 "戰爭威脅"이라는 神話를 믿고 있던 反共主義者들의 基礎를 破壞하였으며 이것은 極히 重要的 意義를 갖는다.

(다) 蘇聯의 防禦能力의 強化는 美國이 軍事的인 威脅으로 自己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는 生覺과 軍事的 優位를 없애 버렸다.

다. 美國의 對蘇關係改善의 要因

(1) 越南戰의 教訓

(가) 美國內에는 蘇聯을 反對하는 核戰爭을 抑制하고 소위 말하는 局地戰을 展開하여 美國의 地位를 強化하려는 分子들이 存在하여 왔다.

(나) 그러나 越南戰을 相互 勢力均衡의 狀況下에서 이러한 賭博은 成功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 美國의 經濟事情

(가) 때문에 美國의 支配者들은 冷戰이 그들의 國內經濟事情을 惡化시키고 있으며 複雜한 國內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는 莫大한 資源이 必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나) 또한 冷戰은 美國이 直面하고 있는 對內외의 複雜한 問題를 處理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事實도 明白해졌다.
- (라) 美國은 現在 通貨危機, 支払赤字, 貿易逆轉 등으로 對外經濟政策에서 困境에 處해 있으며 資本主義諸國 특히 西歐同盟과 日本과의 經濟戰爭에서 美國의 立場이 弱화되고 있다.
- (리) 美國學者들 自身까지 1929 - 1932 年の '大經濟恐慌' 以來 美國이 이렇듯 深刻한 危機에 直面했던 예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 (마) 이로 因해 美國內에는 앞으로 이렇게 龐大한 國內資源, 力量과 手段을 軍備競爭과 對外的인 冒險에 支出하여도 될 것인가 하는 論爭이 展開되었다.
- (바) 이 問題는 1960 年末과 1970 年代初에 있어서 大衆的인 民主運動으로 發軔하였으며 이들은 越南戰과 軍備競爭, 軍國主義를 反對하고 나섰다.
- (사) 지난 數年동안 冷戰을 中止하자는 主張은 美國의 広範圍한 社會層에서 뿐만 아니라 支配階級內에서도 抬頭되고 있다.

라. 美・蘇理解의 共通點

(1) 核戰爭의 防止

이 問題에 對해서는 '美・蘇關係를 規定한 基本文書' 와

核戰爭防止協定에 잘 表現되어 있다.

核戰爭을 防止하기 爲해서는 美·蘇兩國간의 關係改善, 相互理解의 增進, 信賴와 國際情勢의 改善, 紛爭의 平和的解決이 先行되어야 한다.

(2) 軍備競爭의 止揚

(가) 軍備競爭은 老대한 軍事支出을 強要하고 있다. 美國의 資料에 의하면 1945年과 比較한 1970年初의 軍事支出은 다음과 같다.

- 潛水艦建造 — 40 倍
- 航空母艦建造 — 約 10 倍
- 戰略爆擊機製作 — 36 倍
- 戰鬪機製作 — 130 倍

(나) 여기서 놀라운 事實은 많은 美國사람들도 資本主義國家中에서 가장 富裕한 美國의 資源으로서도 이를 감당할 수 가 없다고 생각하기 始作하였다는 것이다.

(다) 經濟協力の 強化

經濟, 科學, 技術, 文化協力は 美·蘇相互間에 附加的인 利益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마. 美·蘇간의 對立

(1) 階級競爭의 尙存

(가) 美·蘇간의 協力이 發展하더라도 階級間的 差異(對立)은

解消시키지는 못한다.

(나) 두 體制間 — 資本主義國家와 社會主義國家 — 에 있어서 經濟, 政治, 「이데올로기」面에서의 階級鬭爭은 繼續될 것이다.

(다) 資本主義國家와 社會主義國家의 世界觀과 階級的 目的이 對立되어 있는 한 서로 容納될 수 없는 것이다.

(2) 敵對的 矛盾에서 非敵對的인 矛盾으로

(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歷史的인 必然性 (階級鬭爭과 資本主義國家의 必然的인 消滅) 을 戰爭, 危險한 紛爭, 無制限한 軍備競争이 아닌 方向으로 轉換시키기 위해 努力해야 할 것이다.

(나) 두 體制間의 不可避한 鬭爭을 人民의 切實한 利益에 威脅을 주지않는 方向으로 轉換시키는 것은 現實可能的인 일이다.

(다) 冷戰으로 不安定한 世界를 國際協力の 展望을 밝게 하고 平和를 鞏固히하는 世界로 만들려는 努力은 重大한 意義를 갖고 있는 것이다.

바. 美國에의 反動勢力

(1) 軍, 産業複合體

(가) 美國內에는 蘇聯과의 關係改善과 緊張緩和에 強硬하게 抵抗하는 支配勢力이 存在하고 있다.

- (나) 이것이 바로 軍事事業의 注文을 左右하는 独占專売者와 軍部로 形成되어 있는 軍, 産業複合體이다.
- (다) 여기에는 極右分子, 社會主義諸國으로부터 逃避한 反革命亡命指導者들, 猶太主義機關의 指導者들로 包含되어 있다.
- (라) 또한 여기에는 相當數의 官吏, 科學分野에 從事하는 勞動者, 冷戰을 復活시키려는 「저널리스트」들도 끼어 있다.

(2) 反蘇宣傳

- (가) 最近 緊張緩和를 反對하는 者들은 蘇聯을 非難하는 廣範 圈한 宣傳을 展開하고 있다.
- (나) 美國의 出版物에 실린 이들의 論說, 報告書들은 蘇聯의 經濟事情을 歪曲하는데 基礎를 두고 있다.
- (다) 그들은 蘇聯의 平和, 緊張緩和政策의 目的은 經濟成長의 둔화현상을 打開하기 爲해 美國과의 經濟的紐帶를 強化시키려는데 있는 것이라고 惡宣傳을 하고 있다.

사. 蘇聯의 對外政策

- (1) 蘇聯의 對外政策의 路線은 美國과 같은 나라와의 關係改善을 통하여 蘇聯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人민의 利益을 가져오게 하려는 方向을 取하고 있다.
- (2) 또한 蘇聯의 對外政策은 社會主義陣營의 모든 나라와 調和를 이룩하여 새로운 社會를 建設함에 보다 有利한 條件을 形成하기 爲해 平和와 緊張緩和를 達成하려는 것이다.

- (3) 世界情勢의 好戰은 越南戰을 終結시키고 「유럽」의 安全을 保障하고 兵力을 強化시키는데 成功을 거두었다.
- (4) 蘇聯에 있어서 美國과의 關係改善은 唯一한 것도 아니며 例外인 것도 아니다.
- (5) 美·蘇關係改善은 國際平和의 要素를 恆久的인 것으로 만들고 社會體制를 달리 하는 나라와의 緊張緩和, 平和愛好的이고 相互 有益한 協力を 確固한 것으로 만드는데 있다.

2. 分 析

가. 本 論說은 蘇聯邦科學「아카데미」(學院) 會員이며 美國問題 研究所長인 「게·알바보브」가 執筆한 長文의 論說로서 지난 6月 「브레즈네프」書記長의 美國訪問으로 急進展되고 있는 美·蘇關係 改善을 總括하고 論評을 加하고 있음.

1. 筆者는 지난 6월에 開催된 美·蘇頂上會談의 意義를 다음과 같이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있음.

- 1) 昨年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美·蘇頂上會談에서 始作된 美·蘇의 關係改善이 이번 「브레즈네프」의 美國訪問으로 定着化되었다.
- (2) 이번 頂上會談에서는 10 個의 새로운 協定을 締結하는등 具體的인 成果를 거두었다.
- (3) 過去の 冷戰에서 平和共存의 基盤을 確立하였다.

(4) 이번 頂上會談에서는 어떠한 疑念이나 疑心도 存在하지 않았다.

다. 注目視되는 點은 美·蘇關係改善의 根本要因으로 다음과 같은 點을 들고 있는 점임.

- (1) 社會主義陣營의 成長이 美國의 政策轉換을 強要하였다.
- (2) 蘇聯의 平和共存政策이 緊張緩和를 이룩하게 한 主要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 (3) 越南戰에서 美國의 失敗는 美國의 冷戰外交를 拋棄케 하였다.
- (4) 美國內의 經濟事情의 惡化는 緊張緩和政策에로의 轉換을 不可避하게 만들고 있다.
- (4) 美·蘇間의 利害의 共通點
核戰爭防止, 軍備競爭의 止揚 등 美·蘇兩國은 超強大國으로서의 利害의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라. 特히 여기서 注目視되는 點은 美·蘇間의 敵對的對立은 不可避하나 이를 잘 處理하면 非敵對的인 矛盾으로 轉換시킬 수 있다는 可能性을 提示한 點임.

- (1) 資本主義國家와 社會主義國家間에 있어서의 經濟, 政治, 「이데올로기」面에서의 階級鬭爭은 不可避하다.
- (2) 그러나 이 歷史的인 不可避性은 鬭爭이 아닌 平和的인 方法에 의한 解決이 可能하다.

3. 評 価

가. 本 論說이 「브레즈네프」의 訪美에 對하여 肯定的인 評價를 加하고 있는 것은 蘇聯이 이번의 美·蘇頂上會談의 成果에 다음과 같이 滿足하고 있는데 起因되는 것으로 評價됨.

- (1) 昨年 「모스크바」會談에서 合意된 兩國關係의 發展이 確認된 點.
- (2) 核戰爭防止에 關聯해서 美·蘇 超大強國의 世界에 있어서의 指導的 役割이 強調된 點.
- (3) 全歐 安保協力會議의 展望을 밝게 하였다는 點.
- (4) 中部「유럽」의 兵力削減에 對해서 10月末의 交渉開始에 對한 合意가 이루어져서 蘇聯이 主張하는 全面, 完全軍縮의 길이 트였다는 點.
- (5) 「시베리아」天然資源開發에 「닉슨」大統領이 好意的인 反應을 보인 點.
- (6) 美·蘇頂上會談을 定期的으로 開催키로 하여 美·蘇關係改善의 持續性을 갖게 되었다는 點.

나. 美·蘇關係改善의 要因으로서 社會主義陣營의 成長과 美國內의 經濟事情의 惡化등을 強調하고 最近 蘇聯의 經濟成長率의 둔화현상이 美·蘇關係改善의 支配的인 要因으로 되어 있다는 西方側의 見解를 否定하고 있는 點은

- (1) 本 論說이 일면 宣傳의인 目的을 띠고
- (2) 社會主義陣營의 資本主義에 대한 優越성을 強調하려는 底意를 內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다. 資本主義國家와 社會主義國家間의 敵對的인 矛盾을 非敵對的인 矛盾으로 轉換시킬 수 있다는 可能性을 指摘한 點은 共產主義哲學의 核心인 “辯證法的 唯物論”에 抵觸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點에서 特히 注目視된다고 評價됨.

- (1) 「맑스·레닌」주의의 古典理論에 依하면 社會發展의 原動力으로서의 矛盾을 두개의 樣態 (敵對的인 矛盾과 非敵對的인 矛盾) 로 分類하고 있음.

(가) 敵對的인 矛盾 ; 暴力鬭爭의 方法에 依해서만이 解決이 可能하며 資本主義國家와 社會主義國家間, 資本主義國家와 植民地間, 資本主義國 相互間, 資本主義國家內의 勞動者와 資本家, 生産刀과 生産關係間의 矛盾은 이에 속함.

(나) 非敵對的인 矛盾 ; 暴力鬭爭이 아닌 平和的인 方法 (指導 相互批判등) 에 依해서 解決이 可能한 矛盾으로 社會主義 國家間, 社會主義 自體內의 矛盾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다) 따라서 이 矛盾의 法則에 依해서 資本主義國家는 自體內의 矛盾, 植民地國家와의 矛盾, 資本主義國家 相互間의 矛盾에 依해서 崩壞되고야말 歷史的인 必然性을 띠고 있다는 것임.

(2) 最近 蘇聯이나 中共이 모두 資本主義國家와 社會主義國家間의 敵對的인 矛盾을 非敵對的인 矛盾으로 轉換시킬 수 있다고 指摘하고 있는 점은 「맑스·레닌」主義에 대한 明白한 修正임.

(3) 이와 같이 中共이나 蘇聯이 「맑스·레닌」主義에 修正을 가하는 것은

(가) 社會發展의 歷史的인 必然性에 대한 信念에 動搖를 일으키고

(나) 中·蘇의 敵對的인 對立이 繼續되고 있는 現實에 「맑스·레닌」主義를 適応시키려는데 起因되는 것으로 評價됨.

2 . 平 和 共 存 斗 階 級 鬭 爭



| | |
|------|--------------|
| 出処日時 | 1973. 8. 22. |
| 出 処 | 뿌라우다 (논설) |
| 題 目 | 平和共存 階級鬭爭 |

1. 內容要約

가. 社會主義 陣營의 強化

- (1) 해를 거듭함에 따라 蘇聯 共産党的 「레닌」主義的 戰略路線은 國際 政治面에 있어서의 平和的인 事態發展에 커다란 影響力을 미치고 있다.
- (2) 冷戰에서부터 緊張緩和가 이루어지고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國家間의 平和共存이 広範圍하게 認定을 받게된 것을 社會主義 諸國의 立場과 團結이 強化되고 國際政治에 미치는 權威와 影響力이 成長한데 原因을 두고 있다.
- (3) 世界舞臺에 있어서의 力學關係는 平和와 社會發展, 社會主義에 有利한 方向으로 根本的인 變化를 일으키고 있다.
- (4) 蘇聯과 其他 社會主義諸國의 一致團結된 힘과 社會主義 陣營의 平和愛護的인 對外政策의 成功, 資本主義 國家內의 進歩的인 勢力의 進出은 資本主義의 支配集團으로 하여금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關係에서 보다 現實的인 路線을 摸索하도록 強要하였다.
- (5) 冷戰의 戰線은 破壞되었으며 國際紛爭의 解決手段으로서 利

用하던 帝國主義의 緊張造成과 戰爭挑發政策은 實踐的인 意義를 喪失하였다.

(6) 蘇聯과 社會主義國家들의 援助에 基礎를 둔 「베트남」人民의 英雄的인 鬪爭에 帝國主義는 「베트남」에서 撤收하지 않을 수 없었다.

(7) 蘇聯과 其他 社會主義諸國은 平和를 위해 싸우며 平和의 敵인 軍事力은 降伏하여 버렸다는 事實을 잊지 않고 있다

나. 蘇聯의 平和共存政策의 成果

(1) 第2次世界大戰의 遺産을 清算한 蘇聯, 「포랜드」, 東獨의 西獨과의 關係改善은 커다란 意義를 갖고 있다.

(2) 「유럽」 安保協力會議의 第1段階會談은 「유럽」에 恒久的인 安保와 協力體制를 造成하기 위한 前提條件을 만들었다.

(3) 1972年 5月の 美·蘇 頂上會談에서 調印된 “美·蘇關係의 基本原則에 관한 共同文書”는 대립하는 社會, 經濟體制를 갖는 國家間의 平和共存을 條約의 形態로 具體化시켰다.

(4) 이 文書가 調印됨으로써 兩國의 關係는 急進發展되고 相互協力の 基礎가 마련되었다.

(5) 1972年 5月과 1973年 6月の 美·蘇 頂上會談의 成果는 世 界 아무리 複雜한 懸案問題라 할지라도 平和共存에 立脚한 協商의 方法으로서 解決이 可能한 것을 보여준 明白한 証 據이다.

(6) 美·蘇間에 締結한 “核戰爭防止協定”은 國際安全保障體制를

實現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다. 平和共存의 原則

- (1) 「레닌」은 社会体制을 달리 하는 國家間的 平和共存은 革命의 全面的인 過程에서 提起되는 問題에 矛盾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 問題의 解決을 促進시켜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2) 「레닌」은 이와 關聯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資本主義의 列強속에 있는 社会主义共和國이 如何한 經濟的인 協定도 맺지 않았더라면 社会主义共和國은 存在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 (3) 平和共存原則은 主權, 平等 國家間的 領土不可侵, 內政不干涉 社会, 經濟 및 政治体制의 自由로운 選択權保障, 國際紛争의 政治的 協商에 依한 解決을 保障하는 것이다.
- (4) 階級的, 社会政治的 見地에 본다면 平和共存原則은
 - (가) 社会主义諸國의 平和的인 發展을 保障하는 條件의 造成
 - (나) 帝國主義의 內政不干涉의 中止
 - (다) 帝國主義者들의 “反革命” 輸出의 遮斷
 - (라) 國際問題의 軍事力에 依한 解決의 不許등이다.
- (5) 平和 - 이것은 社会主义의 共產主義社会를 建設하는데 있어서 不可欠한 條件이다. 蘇聯의 積極的인 平和愛護的 對外政策은 人類에게 社会主义와 平和는 分離될 수 없다는 것을 証明해 주었다.

라. 帝國主義의 本質

- (1) 平和共存原則이 広範圍하게 認定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곧 資本主義 國家들이 全的으로 그들의 帝國主義政策을 방기한 것은 아니다.
- (2) 帝國主義의 本質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變化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帝國主義의 全一的인 支配의 時代는 過去의 것이 되고 말았다.
- (3) 反共主義者들은 帝國主義의 侵略政策이 失敗한 事實을 認定하지 않고 있다.
- (4) 反共主義者들은 社會主義陣營의 友好·團結을 分裂시키며 民族的인 傾向과 社會主義의 變種인 “民族的 共產主義”를 流布시키고 있다.

마. 脫「이데올로기」現狀에 대하여

- (1) 反共主義者들은 國際情勢에 나타나는 새로운 現狀의 原因과 本質에 대하여 제멋대로 說明을 가하고 있다.
- (2) 그들은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變化가 “技術時代”가 到來하였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으며 國家間的 「이데올로기」의 差異가 漸次的으로 그 意義를 喪失하고 社會主義國家와 資本主義國家와의 差異가 消滅되었다고 主張하고 있다.
- (3) 또한 그들은 社會主義國家와 資本主義 國家間에 經濟, 科學 技術의 協力이 強化되고 있는 것은 蘇聯과 其他 社會主義

諸國이 「 스탈스·레닌」主義에서 離脱하고 現狀의 維持를 斷定하고 있는 結果의 所産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 (4) 이와 같은 方法으로 「 브르조아」의 反共主義者들과 北京의 反蘇主義者들은 一致 協力해서 平和愛護的이며 同時에 革命的인 蘇聯의 對外政策의 本質을 털뜰고 있다.

바. 階級鬭爭의 不可避性

- (1) 最近에는 社會問題가 階級鬭爭이 없는 科學·技術革命의 方法으로 解決이 可能하다는 思想이 나타나고 있다.
- (2) 이러한 思想에 따르면 科學技術 革命이 「 브르조아」社會의 社會的인 紛爭을 解決하는데 必要한 條件을 形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 (3) 우리는 過去에도 그러했거니와 앞으로는 帝國主義의 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軍備競爭을 단호히 反對할 것이다.
- (4) 平和共存은 世界의 兩社會體制間의 적대가 中止된 것을 意味하지는 않는다.
- (5) 社會主義와 共產主義間의 鬭爭은 共產主義가 決定的으로 勝利할 때까지 持續될 것이다.
- (6)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은 歷史的으로 不可避한 階級鬭爭이 戰爭과 危險한 紛爭, 무제한의 軍備競爭이 아닌 方向에서 解決토록 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

7. 思想斗争

- (1) 共產主義者들은 「이데올로기」面에 있어서 相互 尊重의 競争을 支持하고 있으나 人民들 間에 敵意와 憎惡를 助成하고 國際舞台에서 中傷과 虛偽를 流布하는 「神經戰」에는 徹底히 反對하고 있다.
- (2) 「이데올로기」鬭爭의 問題는 國家間의 協商의 對象이 될 수 없다.
- (3) 蘇聯과 其他 社會主義 諸國은 平和共存을 守護하면서 共產黨의 内部問題에 干涉하려는 侵害 行爲에 決定的인 打撃을 주었다.
- (4) 蘇聯은 西方國家와의 文化, 思想 및 情報의 交換과 人的 接觸을 贊成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接觸과 交換은 各國의 主權과 法律, 慣習을 尊重하는 限度內에서 實施되어야 한다.

아. 民族解放鬭爭의 支援

- (1) 蘇聯과 社會主義 諸國의 對外政策의 重點은 平和와 國際的인 安全保障을 強化하고 모든 國家와 大陸의 解放鬭爭과의 연대를 強化하고 이들 國家의 自主獨立과 自決權을 侵蝕하는 干涉者들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다.
- (2) 蘇聯 共產黨과 蘇聯政府는 平和的인 對外政策을 帝國主義의 侵略的인 政策을 反對하는 鬭爭에 對한 支援과 「프롤레타리아」的, 社會主義的 國際主義思想의 實踐과 結合시키고 있

- (3) 蘇聯은 帝國主義의 壓迫을 反對하여 싸우는 勞動者階級과 勤勞大衆의 鬪爭을 援助하는 것을 큰 義務로 삼고 있다.
- (4) 우리 黨은 帝國主義의 侵略集團의 挑戰에 타격을 가할 準備과 이에 對한 警戒심을 불러일으키는데 注意를 돌리고 있다.

2. 分析 및 評價

가. 「부라우다」의 本論說은 最近 西方側에서

- (1) 脫「이데올로기」 現狀의 抬頭로 共產世界의 國家關係도 理念보다도 「내쇼날 인테레스트」에 의해 決定된다.
- (2) 技術革命과 産業의 複雜, 다기한 發達로 앞으로 共產世界에서도 共産黨에 對한 「테크노라시」의 優位現象이 抬頭될 것이다.
- (3) 最近 共產主義者들까지 資本主義國家는 언젠가는 崩壞하고야 만다는 所謂 연사적 不可避性에 對한 信念에 動搖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主張하고 있는데 對한 反論의 目的으로 쓰여진 것으로 評價됨.

나. 本 論說은 이질적인 社會體制를 갖는 國家間의 平和共存이 可能하게 된 根本要因으로

- (1) 社會主義 陣營의 力量 增大
- (2) 資本主義國家內의 進歩적인 勢力의 抬頭

- (3) 資本主義國家들의 힘의 限界에 對한 認識등을 들고 있으며 資本主義國家들이 漸次 現實的인 對外政策을 취하게 된 것은 社會主義 陣營의 力量增大에 의해 強要된 것으로 評價하고 있음.

다. 또한 同論說은 蘇聯의 平和共存政策은

- (1) 主權尊重
- (2) 互惠平等
- (3) 領土不可侵
- (4) 內政不干涉
- (5) 社會體制的 選擇權 保障
- (6) 國際紛爭의 平和的인 方法에 의한 解決을 保障하는데 있다
고 明確히 提示하고 있음.

라. 特히 注目視되는 點은 共產主義의 變質現狀에 對한 反論으로 階級鬭爭의 不可避性을 力說하고 있는 點임. 卽

- (1) 帝國主義의 本質(侵略性)에는 變함이 없다.
- (2) 平和共存은 帝國主義의 侵略性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 (3) 美·蘇間의 關係改善이 이루어졌다해서 兩體制間의 적대가 中止된 것은 아니다.
- (4) 그러므로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의 階級鬭爭은 繼續될 것이다

마. 이렇듯 階級鬭爭의 不可避性을 力說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 (1) 美·蘇協力の 意義를 높이 評價하고
- (2) 國際紛爭의 平和的인 解決의 可能性을 強調하며
- (3) 이질적인 社会体制間의 不可避한 階級鬭爭도 戰爭이나 紛爭 또는 軍備競爭이 아닌 方法으로 解決되어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資本主義國家와 社会主義國家間에 存在하는 적대적인 矛盾의 비적대적인 矛盾에로의 轉換의 可能性을 提示하여 본래의 共產主義의 暴力革命論에서 離脱하고 있음.

바. 이와 같이 蘇聯의 平和共存政策이 이을 兩面적인 兩面의 性格을 띠고 있는 것은 唯物辨證法의 核心인

- (1) 史的 必然性
- (2) 矛盾의 法則
- (3) 「스탈린」主義의 創造的 적용問題에 共產主義者들이 動搖를 일으키고 있는데 기인되고 있으며 이의 反映이라고 判斷됨.

3 . 國際緊張緩和と 發展途上國家

| | |
|------|----------------|
| 出處日時 | 1973. 8. 30 |
| 出 處 | 푸라우다論說 |
| 題 目 | 國際緊張緩和와 發展途上國家 |

1. 內容要約

가. 緊張緩和가 發展途上國家에 미치는 肯定的인 影響

- (1) 世界에서 現在 進行되고 있는 變化는 社會主義와 資本主義 間의 關係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發展途上國家에도 影響을 주고 있으며 그들의 利益에도 確實히 符合되고 있다.
- (2) 다만 政治的으로 未熟한 사람들이나 敵意를 갖는 者들만이 緊張緩和가 마치 發展途上國家들의 利益을 犧牲시키며 社會主義와 資本主義國家間에 某種의 協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 (3) 變化하고 있는 國際情勢의 變化는 國際緊張의 殘滓를 清算하는 데에 보다 有利한 條件을 마련해 주고 있다.
- (4) 具體的인 例로서 越南戰을 들 수 있으며 越南戰의 休戰은 緊張緩和를 擴大시키는데 가로 놓인 커다란 障礙物을 除去하였다.
- (5) 社會主義國家와 帝國主義國家間의 科學, 技術協力は 發展途上國家 人民들의 利益에도 符合이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重要한 科學, 技術의 成果를 公開的으로 導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 緊張緩和가 「아시아」의 地域協力體制에 미친 과급효과

- (1) 緊張緩和가 進展되고 冷戰을 通해서 達成하려던 反蘇主義的, 反共主義的인 神話가 破綻됨으로써 民族解放鬪爭을 抑制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帝國主義의 軍事·政治「블럭」과 地域協力體制는 危機에 直面하고 있다.
- (2) 이에 대한 明白한 例로서는 SEATO 를 들 수가 있다. 「파키스탄」이 公式的으로 이 機構에서 脫退하였으며 「프랑스」는 明年度부터 SEATO 基金을 納入하지 않겠다는 뜻을 表明하였다.
- (3) 帝國主義를 支持하는 地域協力機構인 ASPAC 도 이 機構의 定期閣僚理事會의 開催가 無期延期됨으로써 事實上 崩壞되기 始作하였다.
- (4) 帝國主義集團들이 CENTO 의 技能을 強化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CENTO 는 困境에 處해 있다.
- (5) 時代의 潮流는 美洲機構의 帝國主義의 性格을 破壞하고 있다. 이 機構의 帝國主義的인 不公平性에 反對하는 人民들의 要求로 因하여 이 機構의 性格轉換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帝國主義가 冷戰을 바라는 理由

- (1) 冷戰과 國際緊張의 造成은 國際關係에 있어서 反民主主義의 傾向과 發展途上國家들의 權利를 侵害하는 氣運을 培養해 주는 原因이 되고 있다.
- (2) 帝國主義者들은 그들의 特權을 保護하고 植民地를 獲得하려는 意圖을 隱蔽하기 위하여 發展途上國家들을 冷戰에 몰아넣곤 하였다.
- (3) 이렇게 하여 帝國主義는 植民地 또는 反植民地の 隸屬으로부터 解放을 爭取하려는 人民들에게 軍事的인 介入을 때때로 試圖하고 있는 것이다.
- (4) 帝國主義 集團들은 世界的인 緊張緩和의 進展이 發展途上國家들의 利益에 背馳되는 것처럼 認識시키기 위해 온갖 거짓 思想을 집요하게 高취시키고 있으며 社會主義陣營의 役割과 支援을 減少시키고 있다.

라. 毛沢東指導부의 陰謀

- (1) 特히 北京의 指導部는 世界平和와 人民을 爲한 安全保障을 反對하는 陰謀를 꾸미는데 있어서 추악한 役割을 하고 있다.
- (2) 毛沢東主義의 指導者들은 根柢없이 國際緊張緩和가 그들의 大國主義的 霸權主義的 目的追求에 配置되는 것으로 看做하고 있다.
- (3) 그렇기 때문에 中共의 指導者들은 帝國主義와 帝國主義를

贊成하는 反動들의 利益과 一致되는 路線을 推進하면서 隨時로 그들과 直接的으로 結託하며 國際關係의 正常化의 進展에 障害가 되도록 妨害工作을 展開하고 緊張要因을 除去하는 일에 反對하고 있다.

- (4) 이를 爲해 그들은 民族解放運動과 發展途上國家들의 利益을 冷談하게도 犧牲시키려고 하고 있다.
- (5) 勿論 北京의 指導部는 그들의 陰謀를 公明的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들은 (두超大強國이 共謀) 하고 있다는 空論의 인 「کم페인」을 展開하는 것으로써 그들의 意圖를 隱蔽하고 있다.
- (6) 北京의 煽動員들은 發展途上國家들에게 二超大強國 (事實上에 있어서는 蘇聯) 에 對抗하기 爲해 聯合해야 한다고 常套的으로 呼訴하고 있다.
- (7) 그들은 發展途上國家들의 團結은 中共을 中心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中共의 比호를 받아야 한다고 暗示를 하고 있다.
- (8) 中共의 指導部는 亞細亞集團安祿体制의 形成을 狂暴하게 反對하고 있다. 그들은 印支半島와 東南亞細亞의 懸案問題의 正常化와 正當한 解決을 反對하는 運動을 繼續하고 있다.
- (9) 中共指導部는 自身을 發展途上國家들의 利益守護者로 自勉하면서 실은 이들 國家들을 犧牲시켜가며 帝國主義의 列強들과 한 袂가 될 用意가 있음을 強調하고 있다.
- (10) 北京은 近東에 있어서의 緊張을 더욱 尖銳化시키려고 試圖

하고 있다. 北京은 「아랍」人民들과 蘇聯間의 友好關係를 弱化시키기 위해 도전적인 立場을 취하고 있으며 「아랍」人民들을 帝國主義의 한 나라에 내맡기려고 하고 있다.

- (11) 毛沢東主義者들은 그들의 발언을 「알지」에서 開催되는 非同盟會議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帝國主義者들과 結託하고 있는 非同盟國家內的 反動集團들과 步調를 같이 하면서 非同盟國家들의 反帝國主義的인 運動을 둔화시키며 그들을 國家를 社會主義陣營에 대항하도록 만들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

마. 蘇聯의 對外政策

- (1) 蘇聯과 社會主義諸國의 對外政策은 戰爭威脅의 除去, 國際的인 安全保障의 確立, 自主 獨立의 強化, 主權尊重, 領土不可侵, 國際間的 平等的 關係維持와 相互協力을 도모하는데 있다.
- (2) 國際情勢의 緊張이 緩和되고 平和 共存이 進展되더라도 이것은 民族 解放鬪爭을 中止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 (3) 民族解放鬪爭은 帝國主義의 迫박가 存在하는한 繼續될 것이다. 階級間的 力學關係의 變化로 因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緊張緩和는 民族解放鬪爭에 有利한 條件을 造成해 주고 있다.
- (4) 蘇聯은 國際關係에서 成就한 成果(緊張緩和)에 逆轉 不可的의 性格을 부여하며 앞으로는 平和戰略을 一貫해서 推進

할 것이다.

- (5) 蘇聯은 帝國主義勢力의 陰謀에 對하여 타격을 加할 것이며 緊張緩和가 造成된 現情勢下에서도 過去와 마찬가지로 社會的, 人種的 박해를 反對하며 싸우는 사람들의 편에서 있다.
- (6) 蘇聯은 紛爭을 平和的으로 解決하려는 「아랍」人民들의 正義의 鬪爭을 積極 支援하고 있다. 蘇聯은 「앙고라」, 「기니」, 「모잠비크」, 「잠비아」, 南「아프리카」의 愛國主義者들에게 全面的인 支援을 繼續할 것이다.
- (7) 緊張緩和가 造成되고 있는 現狀況下에서도 蘇聯의 對外政策은 民族解放鬪爭과 反帝國主義鬪爭을 支援하는 「레닌」主義的 原則을 見地할 것이다.

2. 分析 및 評價

가. 本論說은 「카·부르젠즈」가 執筆한 長文의 論說로서 蘇聯이 標榜하고 있는 平和共存政策을 中·蘇紛爭의 立場에서 적극 비호하고 對中共非難에 刀點을 두고 있음.

나. 中·蘇間의 舌戰은 지난 6月 「브레즈네프」의 訪美를 前後하여 일단 激化되었으며

- (1) 中共側에서는 蘇聯의 對外政策全般에 對한 非難을 加하고 蘇聯 역시 中共의 外交活動에 對한 批判을 加함으로써 東·西에 걸친 外交問題를 論爭의 초점으로 하고 있으며

- (2) 「이베올로기」의 論争을 거의 비재하고 있다는 것이 特徵으로 되어 있음.

다. 最近 中共은 蘇聯의 平和共存政策의 展開에 대하여

- (1) 이는 世界制霸를 爲한 美·蘇間의 結託에 不外하며
(2) 美·蘇支配體制의 確立은 弱小國家들로부터 犧牲을 強要하고 있으며
(3) 따라서 蘇聯의 對外政策의 本質은 「차리」황제의 領土擴張主義를 繼承한 것이라고 신랄한 批判을 加한 바 있음.

라. 本論說은 이와 같은 中共의 非難에 對하여

- (1) 蘇聯의 平和共存政策은 弱小國家들의 利益에 配置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들 國家들의 利益에 符合되고 있다.
(2) 그 具體的인 例로서
(가) 越南戰의 終息
(나) SEATO 와 CENTO 의 危機的 狀況에의 逢着
(다) ASPAC 의 無期延期등을 들고 蘇聯의 平和共存政策의 成果를 높이 評價하고 있음.
(3) 또한 冷戰은 언제나 帝國主義者들이 弱小國家들을 支配하기 爲한 手段으로서 濫用되어 왔으므로 緊張緩和은 이와같은 帝國主義者들의 新殖民主義政策의 根源을 除去하는데 寄與하였다고 強調하면서 反論을 提起하고 있음.

다. 그러므로 中共側이 이러한 蘇聯의 緊張緩和政策을 反對하는 것은

(1) 民族解放鬭爭과 發展途上國家들의 利益을 冷談하게 犧牲시키려는 底意를 나타낸 것이며

(2)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의 構想을 妨礙하기 위해 東南「아시아」地域에 第3勢力을 形成하려는 中共의 意圖를 破壞하기 위한 意圖에서 本論說이 쓰여지게 된 것으로 評價됨.

4. 共產主義哲學面에서 본

中·蘇戰爭의 可能性

共產主義哲學面에서 본 中·蘇戰爭의 可能性

1. 概要

最近 中·소紛爭의 敵對的 對立이 到底히 돌이킬 수 없을 程度로 激化되어 있고 中·소間의 全面的인 戰爭의 挑發可能性이 濃厚해지고 있음.

反面 敵對關係에 있는 中共과 소聯은 相對便의 勢力擴張을 牽制하고 軍事的 威脅을 抑制하기 위해 西方諸國과의 協力を 強化하고 있음.

共產陣營의 雙壁인 中·소間의 對立과 이들 두나라의 西方諸國에 의 密着을 「맑스·레닌」主義와 「스탈린」의 永久暴力革命論의 見地에서는 到底히 생각할 수도 없는 現狀임. 그러던 이와같은 「맑스·레닌」主義에 對한 變遷현상이 共產主義者들의 社會改革의 唯一無二한 武器로서 自處하던 唯物弁証法의 가장 重要한 法則으로서 永久暴力革命의 理論的 根拠가 되어 있는 “矛盾의 法則” 과는 어떠한 關係에 있는가를 研究하는데 本研究報告書는 目的을 두고 있음.

2. 矛盾의 法則

弁証法의 唯物論에 依하면 事物(社會現象 包含) 發展의 原動力은 事物에 內在하는 矛盾의 對立과 鬪爭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고 把握하고 이 矛盾의 法則을 唯物弁証法の 가장 基本的인 法則으로 看做하고 있음. 그리고 社会發展의 諸矛盾 가운데서 가장 重要한 矛盾으로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 階級間的 矛盾, 새 것과 낡은 것과의 矛盾을 들고 있음.

가. 「레닌」

- (1) “ 本來의 意味에서 말하면 弁証法이란 対象의 本質 그 自体에 있는 矛盾을 研究하는 것이다. ” (「레닌」의 哲學 「노트」 中の 「헤겔」 哲學史 第1卷 中에서)
- (2) “ 統一物의 두개의 分派과 그 통일물의 矛盾된 諸部分의 認識은 弁証法の 核心이다 ” (「레닌」의 弁証法的 問題에 關해서)

나. 毛沢東

- (1) “ 事物의 矛盾의 法則 即 對立物의 統一의 法則은 唯物弁証法の 가장 基本的인 法則이다 ” (矛盾論)
- (2) “ 社会의 變化는 主로 社会의 內的인 發展 即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 階級間的 矛盾, 새 것과 낡은 것과의 矛盾에 의한 것이다 ” (矛盾論)
- (3) “ 矛盾의 普遍性 또는 絕對性이라는 問題에는 두가지의 意味가 있다. 그 하나는, 矛盾은 모든 事物의 發展過程속에 存在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事物의 發展過程속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矛盾의 運動이 存在한다는 것이다. ” (矛盾論)

3. 적대적인 矛盾과 비적대적인 矛盾

共產主義者들은 社会發展의 原動力으로서의 矛盾의 鬭爭을 두개의 양태 卽 “적대적인 矛盾”과 “비적대적인 矛盾”으로 区分하고 同時에 이와 같은 形態의 区分을 大端히 重要視하고 있음. 왜냐하면 이것은 矛盾을 어떻게 解決하는가 하는 實踐的인 問題와 關係되어 있기 때문임.

가. 敵對的인 矛盾의 特性

敵對的인 矛盾은 階級社会의 産物이며 따라서 資本主義國家와 社会主義國家間, 資本主義國家와 植民地間, 資本主義國家 相互間 「프로레타리아」와 「브르조아」間的 矛盾은 이에 屬한다.

- (1) 敵對的인 矛盾은 不可避하게 衝突에 이르며 窮極의으로 強制的인 方法이 아니고서는 克服되지 않는다.
- (2) 이 경우 낡은 것에 처하여 새로운 것이 勝利한다는 條件 밑에서 새로운 質的狀態의 이행은 爆發에 依해서 社会的, 政治的 革命에 依해서 遂行된다.
- (3) 敵對的인 矛盾의 根本的인 解決은 낡은 社会体制의 基礎를 根絶하지 않고서는 不可能하다.

나. 非敵對的인 矛盾의 特性

人間에 依한 人間의 擧取가 끝났을 때 敵對的인 矛盾이 消滅한다. 그러므로 社会主義國家間, 社会主義自体内의 矛盾은

非敵對的인 矛盾에 屬한다.

- (1) 非敵對的인 矛盾은 事態를 衝突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고 適時에 克服될 수가 있으며 새로운 것이 힘의 成長의 結果 낳은 것에 對한 새로운 것의 鬪爭과 勝利로 끝난다.
- (2) 이 境遇 새로운 質的狀態에의 이행은 爆發이 없는 飛躍에 의해서 새로운 質의 諸要素의 漸進的인 蓄積과 낳은 質의 諸要素의 漸進的인 消滅에 의해서 遂行된다.
- (3) 非敵對的인 矛盾의 克服은 現存하는 社会體制의 強化에 이르게 하며 社会主義에서 共產主義에로의 發展的인 條件이다.
- (4) 非敵對的인 矛盾을 밝히고 그 克服을 向해 大衆을 動員하는 方法으로서는 비판과 自己비판이다.

※ 「레닌」：“敵對와 矛盾은 明白히 다르다. 社会主義 下에서는 敵對는 없거나 矛盾은 存続한다”
(「루하린」의 過渡間의 經濟學”에 對한 「레닌」의 評주)

※ 毛沢東：“質的으로 다른 矛盾은 質的으로 다른 方法에 의해서 解決된다. 例를 들면 「프로레타리아」와 「브르조아」와의 矛盾은 社会主義 革命의 方法에 의해서 解決되며 人民大衆과 封建制度의 矛盾은 民主主義革命의 方法에 의해서 解決되며 社会主義社會에 있어서의 勞動者階級과 農民階級과의 矛盾은 農業의 集團化와 農業의 機械化의 方法에 의해서

解決되며 共産黨内の 矛盾은 批判과 自己批判
의 方法에 依해서 解決되며 社会와 自然과의
矛盾은 生産力을 發展시킴으로써 解決된다”
(矛盾論)

4. 矛盾의 法則에 對한 修正

古典的인 矛盾의 法則에 對한 修正은 毛沢東에 依해서 加해지
기 始作하였는 바 그 畵은 1937年에 著作한 그의 著書
“矛盾論”에서 起기 始作하여 1957年에 發表한 “人民内部的
矛盾을 正當하게 處理하는 問題에 關하여”라는 論說에서 보다
明確한 形態를 띠고 나타났음.

가. 矛盾의 相互性格轉換

毛沢東은 亦是 “矛盾論”에서 社会主義下에서는 敵對는 없어
지고 非敵對的인 矛盾만이 남게된다고 從來의 矛盾法則과 一
致되는 見解를 主張하고 있으나 狀況에 따라서는 敵對的인
矛盾의 非敵對的인 矛盾에로의 轉換 또는 非敵對的인 矛盾의
敵對的인 矛盾에로의 性格轉換 可能性을 提示하고 이를 警告
하고 있음.

※ 毛沢東의 矛盾論

- (1) “事物의 具體的인 發展에 基礎하여 어떤 一部分의 矛盾은
本來 非敵對的인 것이나 發展하여 敵對的인 것이 되며 또

어떤 矛盾은 原来 敵對적이었던 것이 發展해서 非敵對적인 것이 된다.”

- (2) “中國共產黨의 歷史에도 그 例가 있다. 우리들의 많은 同志의 正當한 思考方式과 진독수와 강국도 等의 그릇된 思考方式의 矛盾은 最初에는 敵對性을 갖지 않았으나 그後 漸次 敵對性的의 것으로 發展하였다.”

나. 矛盾의 性格轉換의 擴大解釋

그러던중 毛澤東은 1956年 「항가리」 暴動事件에 衝擊을 받고 1957年에 發表한 그의 論說 “人民內部的 矛盾을 正當하게 處理하는 問題에 關하여”에서는 社會主義國家間, 社會主義國內에도 敵對적인 矛盾이 存在하고 있음을 率直히 是認하고 이를 明白히 하였음.

※ 毛澤東(人民內部的 矛盾을 正當하게 處理하는 問題에 關하여)

- (1) “社會主義 建設에 贊成하고 이를 擁護하고 이에 參加하는 모든 階級, 階層, 社會集團은 人民의 範圍에 들어가며 社會主義革命에 反抗하고 社會主義建設을 敵視하고 破壞하려는 社會勢力, 社會集團은 모두 人民의 敵이다.
- (2) “우리들의 人民政府는 人民의 利益을 眞實로 代表하는 政府이다. 그러나 人民政府와 人民大衆사이에도 矛盾이 있다. 그 矛盾은 國家의 利益, 集團의 利益과 個人의 利

益間的 矛盾, 民主集中制와의 矛盾, 指導하는 사람과 指導받는 사람과의 矛盾, 國家機關에 있는 工作員의 官僚主義的인 事業「스타일」과 大衆間的 矛盾이 包含된다.

(3) “一般의 狀況下에서는 人民內部的 矛盾은 敵對的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處理가 正當하지 않던가 또 警戒심을 잃고 怠慢하면 敵對的으로 될 可能性이 있다.

(4) “많은 사람이 社會主義社會에는 矛盾이 있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기 때문에 社會의 矛盾에 當面했을 때 손을 대지 않고 受動的立場에 빠지고 만다.”

○ (4)에서 말하는 “矛盾”이 어떤 矛盾인가를 明確히 하고 있지 않으나, 前後關係로 보다 “敵對的인 矛盾을 가리키고 있음이 明白함.

5. 毛沢東의 理論과 最近의 事態發展

이와같은 毛沢東의 矛盾法則에 對한 理論에 對해서 소聯은, 毛沢東式으로 矛盾의 性格轉換을 人爲的으로 한다는 것은 “矛盾의 性質이 矛盾의 解決方法을 規定하는 것이 아니라 逆으로 解決의 方法 即 政治行動이 矛盾의 性質을 變化시키는 것이다.” 라고 絶對的으로 容認할 수 없다고 非難을 加하고 있음. 그러나 最近의 國際情勢의 事態發展은 오히려 毛沢東의 理論을 뒷받침하는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어 소聯으로서도 現實的으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困境에 處해 있음.

가. 社会主义國家間의 敵對的 對立 (非敵對的 矛盾의 敵對的인 矛盾에 로의 轉換)

本來 社会主义國家間의 關係는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 (自國의 利益을 國際共產主義 運動의 利益에 從屬시킨다)에 立脚하여 團結을 圖謀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最近 社会主义諸國이 自國의 利益을 무엇보다 優先해서 追求하고 武力衝突까지 惹起함으로써 社会主义國家間에도 敵對的인 矛盾이 存在함을 公公然하게 보여 주었음. 그 代表的인 것이 中·소間의 敵對的 對立임

※ 具體的인 例

- (1) 1956年의 「헝가리」暴動
- (2) 1968年의 「체코」內의 改革派와 保守派間의 對決과 小聯軍의 「체코」侵入
- (3) 中·소間의 領土紛爭과 1969年의 “진보도”에서의 大的인 武力衝突
- (4) 最近 中·소紛爭의 激化
中 共：小聯은 社会帝國主義라고 하며 世界 最大의 敵으로 看做
小 聯：毛澤東主義는 「맑스」主義에 敵對的이며 反「소」主義라고 規定

나. 社會主義와 資本主義國家間의 非敵對的 矛盾(敵對的 矛盾의 非敵對的 矛盾에로의 轉換)

社會主義國家間과 社會主義自體內의 矛盾이 敵對的으로 轉換될 수 있는 反面 社會主義國家對 資本主義國家間의 敵對的 矛盾이 非敵對的 矛盾에로의 轉換이 現實的으로 可能하게 됨.

(1) 소聯과 美國

소聯은 資本主義國家와 社會主義國家間의 階級鬭爭의 不可避性을 主張하고 있으나 現實的으로는 資本主義國家와 社會主義國家間의 共存과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을 核心으로 하는 平和共存을 標榜하고 나섬으로서 “永久暴力革命”路線에 離脫하고 있음.

※平和共存과 階級鬭爭의 要旨(8.22日字 「루라우다」紙의 論說

(가) 帝國主義의 侵略性의 本質은 變化하지 않았으며 資本主義國家와 社會主義國家間의 階級鬭爭은 不可避하다.

(나) 그러나 2次에 걸친 美·소 頂上會談은 제아무리 困難한 問題일지라도 平和的인 方法으로 解決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다) 歷史的으로 不可避한 階級鬭爭도 戰爭, 紛爭, 軍備競爭이 아닌 平和的인 方法에 依한 解決이 現實的으로 可能하다.

(라) 美·소間에 締結한 “核戰爭防止條約”은 核戰爭의 威脅

減少시키고 나아가 이를 제거하는데 크게 寄与하였다.

(2) 中國과 西方諸國과의 關係

中共은 소련의 軍事的인 威脅에 対処하고 이를 抑制하는 手段으로서 西歐諸國에 接近하고 소련과 競爭的으로 美國과의 關係正常化를 試圖하고 있음. 소련軍의 「체코」 侵攻은 中共으로 하여금 소련의 武力侵攻의 現實可能性을 痛感케 하였으며 이것이 中共이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하게된 最大의 契因으로 作用하게 되었다는 함은 公公然한 事實로 되어 있음.

※中共의 西方諸國接近에서 나타난 反「소」 敵對行爲

- (가) 中共은 西獨에 接近하여 소련·「프랜드」의 西獨과의 條約締結을 反對하였다.
- (나) 歐洲에 美軍의 駐屯을 支持하고 있다.
- (다) 「나토」會員國의 軍備縮小를 反對하고 있으며 西方資本主義諸國의 經濟的, 政治的 및 軍事的 統合을 支持하고 있다.
- (라) 「유럽」안보協力會議의 開催를 積極反對하고 있다.
- (리) 소련의 「아시아」集團안보 構想은 積極反對하고 있으며 美·日 安條約과 美國의 “ 極東核地帶 ”를 支持하고 있다.
- (리) 소련의 「아시아」集團안보 構想에 對備하여 「아시아」에

서 美軍의 軍事勢力維持에 同意하였다.

6. 結論 및 展望

가. 矛盾法則에 對한 修正의 根本原因

(1) 唯物弁証法の 生命力的 喪失

現實은 언제나 理論보다 豊富하고 多樣하여 「맑스」와 「레닌」이 미처 豫見할 수 없었던 事態가 續出하고 있음. 그러므로 「맑스」·「레닌」主義의 古典命題를 現實에 어떻게 適用하는가는 問題에서 共產主義者들은 危機에 봉착하고 있음.

(2) 「맑스·레닌」主義 命題를 政治的으로 利用

따라서 各國의 共產主義者들은 難因에 逆着할 때마다 「맑스·레닌」主義의 古典命題를 自國에 有利하도록 適用함으로써 國際共產主義 運動에는 教條主義와 修正主義가 發生하고 있으며 저마다 「맑스·레닌」主義의 傳統性和 純粹性を 主張하고 나섬으로써 紛爭이 惹起되고 있음.

(3) 唯物弁証法の 客觀的 基準의 喪失

「맑스·레닌」主義의 創造的 適用問題와 關聯하여 唯物弁証法에는 客觀的基準이 欠如되어 있다는 事實이 漸次 밝혀지고 있음.

“矛盾法則”을 두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徹對的 矛盾과 非

敵對的 矛盾의 特徵이 무엇인가 明確히 規定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를 敵對的 矛盾으로 보며 어디까지를 非敵對的 矛盾으로 보는가 하는 限界가 明確하지 않음. 오늘날과 같이 複雜多岐하게 發展하는 現代에 있어서는 이의 明確한 限界를 規定하려해도 할 수 없는 것임.

나. 中·소의 矛盾法則의 修正方向

(1) 소 聯

(가) 社會主義國家간의 矛盾은 어디까지나 非敵對的인 矛盾이며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思想으로 克服할 수 있다는 立場을 堅持하고 있음. 따라서 中·소 紛爭이 惹起되는 것은 中共의 指導者들이 「맑스·레닌」主義에 離脫하고 있는 데에 原因을 찾고 있음.

(나) 그러면서 社會主義國家 對 資本主義國家의 敵對的인 矛盾은 平和共存에 基礎하여 平和적으로 解決할 수 있다는 判斷下에 資本主義國家와의 色對的인 矛盾은 非敵對的인 矛盾으로 轉換시키는 方向으로 修正을 加하고 있음.

(2) 中 共

(가) 中共은 矛盾法則에 對한 修正을 소련과는 反對의 方向에서 修正을 加하고 있음. 卽 社會主義國家간의 矛盾도 敵對的인 矛盾으로 發展될 수 있음을 率直히 認定하고 있으며 이러한 理論的 判斷에서 소련의 威脅에 對備하고

있음.

- (나) 反面 中共은 社会主义國家 對 資本主義國家間的 矛盾的 敵對性은 變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永久暴力革命的 立場을 堅持하고 있음. 中共이 西歐諸國에 接近하여 協力を 強化하는 것은 世界의 最大의 敵인 소聯을 優先 牽制하는 政治的 配慮에서 나온 것이며 中共의 對西方接近이 곧 資本主義國家와의 敵對性을 放棄한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님.

나. 展 望

- (1) 中·소關係는 國家利害關係의 見地에서는 勿論 共產主義 哲學의 根本問題에 있어서도 到底히 들이킬 수 없는 敵對關係의 發展으로 타락하였음.
- (2) 따라서 中·소의 再結合은 어느 한쪽의 屈伏이 없는 限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現狀態下에서는 強要된 屈伏만이 있을 수 있음.
- (3) 소련이 中共을 非難함에 있어서 現 中共의 毛沢東 集團과 人民을 明確히 區別하고 있는 點으로 보아 소련은 現在 老齡인 毛沢東의 死後 中共의 變質에 期待를 걸고 있는 것으로 判斷됨.
- (4) 그러므로 소聯으로서는 毛沢東 死後에도 中共의 變質可能性에 確信이 서지 않는다면 中共에 豫防戰爭을 敢行할 可能性이 濃厚한 것으로 展望됨.



5 .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의
問 題 点 들

「아시아」集團安保体制의 問題點들

1. 問題의 提起

소聯의 「아시아」集團安保体制을 韓國의 安保問題와 關聯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問題가 提起됨.

가. 「아시아」集團安保体制은 既存地域協力機構나 既存防衛体制을 解体시키려는 意圖를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同時共存을 認定하는 것인가?

나. 「아시아」集團安保体制의 參與國家 範圍에는 分斷國의 雙方(越南과 越巔, 韓國과 北韓)을 包含하고 있는가? 아니면 越南과 韓國을 排除하는 것인가?

2. 「아시아」集團安保体制 構想의 經過와 同構想의 曖昧, 模糊性

「아시아」集團安保体制에 對한 最初 構想은 1954년에 中共과 소聯에 依해 提起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過程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同構想의 經過에서 다음과 같은 同構想의 不透明性이 類推됨.

가. 第1段階(中·소 密越時代: 1954-1958)

(1) 1954. 4. 28 : 周恩來首相은 「「아시아」의 國家

들은 「아시아」의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데 自身の 責任을 다하고 共同努力을 摸索하기 위해 서로 協議해야 한다」라고 声明

- (2) 1954.4.29 : 「제네바」會議에 參席한 「몰로토프」外相이 上記 周恩来 首相의 声明에 同調하면서 「「유럽」과 「아시아」人民들은 「유럽」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全世界의 平和를 鞏固히 하기 위한 關心을 增進시키기 위한 措置를 取해야 한다. 라고 言明함」(이것이 소련의 同構想에 對한 最初의 公式声明임.)
- (3) 1954.5.11 : 蘇聯은 周恩来首相의 「아시아」安保에 對한 声明을 거듭 支持하면서 좀 더 發展시킨 形態를 提示함. 「몰로토프」外相은 中共의 立場을 支持하면서 다음과 같이 言及함. 「蘇聯은 모든 「아시아」人民을 爲하여 周恩来首相이 提案한 바와 같은 集團安保體制를 支持할 用意가 있다. 蘇聯은 好戰적인 軍事的 集團의 必要를 排除한다면 集團安保體制를 支持할 것이다」
- (4) 1955.7.30 : 周恩来首相은 第1次全國人民會議 第2期會議에 提出한 外交政策報告에서 「美國을 包含한 「아시아」·太平洋地域國家들은 集團적인 平和條約을 締結하고 그 條約으로 現在 이 地域에 있는 好戰적인 軍事同盟을 代換하기 바란다」고 言及.
- (5) 1956.2. : 上記 周恩来의 声明에 對한 反應으로서 「호르시 초프」首相은 第20次 蘇聯. 共産黨大會에 提出한 報告書에서 「偉대한 中華人民共和國은 周恩来 首相의 「아시아」地域 平和條約에 對한 提案을 通하여 이 時点에서 매우

重大한 役割을 遂行하였으며 現在 遂行하고 있다』라고言明.

- (6) 1957.11. : 12個의 社会主义國家가 共産党에 依해서 発表된 「모스크바」宣言에서도 集團安保概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簡單히 言及된 바 있음.

『會議參加者들은 平和의 維持, 戰爭反對, 平和共存의 維持,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서의 集團安保体制의 確立에 對한 支持를 表明하였다.』

- (7) 1958.4.7 : 中共은 「루마니아」와의 共同聲明에서 同構想에 對해 좀더 具體的인 提案을 함.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서 軍事陣營은 解体되어야 하며 그 代身 集團安保体制가 構成되어야 한다.』

- (8) 1960.8.1 : 「스위스」建國記念日에 열린 「리셴손」에서 周恩來首相은 「美國을 包含한 「아시아」太平洋地域의 諸國家들은 相互不可侵 및 平和協定을 締結해야 하며 따라서 이 地域을 非核地帶化해야 한다』고 提議함.

* 小結論 (特徵)

- 中·소紛爭이 表面化되기 以前에는 中共이 이 構想을 먼저 提案하고 소聯이 이에 積極的으로 贊同하는 樣相을 띠었다.

그러므로 同構想의 提案은 事實上 中·소의 共同提携下에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소聯과 中共의 單一体制的인 團結 紐帶關係는 「아시아」集團安保體制 構想의 不可欠한 前提條件이었다.

- 가장 重要한 特徵으로서는 中共의 提案은 比較的 具體的인데 反하여 그 問題에 對한 소聯의 聲明은 어느程度 基礎的이며 抽象的인 것이었음. 卽 中共의 構想은 「아시아」地域內의 쟁무 또는 地域性格의 防衛條約機構를 解決시키고 集團安保體制로 代置하려는 目的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反하여 소련의 構想은 이 點에 對해서는 分明치 않다.

나. 第2段階 (中→소紛爭의 激化時代: 1960 - 現在)

「아시아」集團安保體制에 對한 構想은 1954年以來 中共과 소련에 의해 꾸준히 提起되어 왔으나 中·소紛爭의 激化, 1967年의 中東戰爭, 越南戰의 擴大等 「아시아」情勢의 緊張으로 內在되어 왔음. 그러던中 歐洲情勢와 「아시아」情勢의 緩和을 背景으로 하여 소련이 다시 「아시아」集團安保體制 構想을 提唱하여 소련의 外交舞臺에 再登場하기 始作하였음.

- (1) 1969.6.6. : 世界共產黨 大會에서 「브레즈네프」書記長이 「……狀況의 發展에 따라 이제 「아시아」에 있어서 集團安保體制 確立에 對한 問題는 議題가 되어야 한다」라고

提唱함.

(2) 1972.3.14 : 「아프카니스탄」 首相의 訪소 歡迎 「리셴손」에서 「코시킨」 首相은 「아시아」集團安保体制의 重要한 原則으로서 「國際紛争 解決에 있어서 武力의 不行使, 平和共存의 推進 및 相異한 体制를 가진 國家들 사이의 相互 協助」라고 定義하고 이 原則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絶對 攻撃하지 않는 것」 이라고 言明

(3) 1972.3.20 : 「브레즈네프」 書記長은 第15次 「소비에트」 勞働者同盟 全体會議에서 「아시아」集團安保体制의 原則으로서 다음과 같은 5個項目을 提示함.

- ① 武力不行使
- ② 主權尊重
- ③ 領土不可侵
- ④ 內政不干涉
- ⑤ 經濟 其他分野에 있어서의 互惠, 平等의 協力

(4) 1973.8.6. : 「코시킨」 首相은 「이란」의 “ 「호베이라」 首相 歡迎晩餐會에서 演說하면서 上記 「브레즈네프」의 5個原則에 다시 5個原則을 追加하여 10個原則이 提示되었음.

- ⑥ 民族自決權의 尊重
- ⑦ 侵略에 依한 領土併合 禁止
- ⑧ 國際紛争의 平和的 解決

⑨ 天然資源保有的 主權尊重

⑩ 社会, 經濟改革的 權利尊重

(5) 上記와 같은 主要原則을 提示함과 同時에 소련은 「다나카」首相의 訪소를 앞두고 主要 「매스콤」과 소련 首腦陣의 演說을 通하여 平和外交攻勢를 展開하여 「아시아」集團 安保体制 構想이 實現되어야 한다고 積極 呼訴함.

(가) 73.8.7. 日字 「프라우다」紙에 「알렉산드로프」의 論文 “平和와 社会主義의 利益을 위하여”를 發表.

※ 筆者 「알렉산드로프」는 어떤 地位에 있다는 確證은 없고 党的 權威者(單數 또는 複數)의 「펜·네임」이라는 說이 있음. 「알렉산드로프」의 論文은 「체코」事變, 中共關係에서 소련의 立場을 밝힌 바 있으며 主要 外交關係問題에 關하여 党的 公式見解를 發表하는 論文으로 注目되고 있음.

(나) 73. 8. 15 : 「브레즈네프」 書記長. 「카자크」 共和國의 首都 「알마타」에서 行한 演說을 通해 “「유럽」에서 實現한 緊張緩和를 世界 全域에 擴大하자”고 力說.

(다) 73. 8. 24日字 「프라우다」紙에 「아시아」에 平和와 安全을”이라는 題下의 社說을 掲載

(라) 73. 8. 26日字 同紙에 「알렉산드로프」의 論文 “中共 指導部의 外交路線의 若干의 基本問題에 關하여”를 發表

(마) 73.9.11日字 同紙에 「빅토르·마에브스키」의 論文

“ 「아시아」는 平和原則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發表

※ 「빅토르·마에브스키」는 「프라우다」紙의 政治評論家로서 소련의 黨과 政府의 意向을 代表해서 言論家임
지난 6月 日本을 訪問한 바 있으며 「프라우다」紙의 對日關係 論文은 거의 本 政治評論員에 依해 執筆되고 있음.

(바) 上記 社說, 論說과 論文中에서 「아시아」集團安保體制를 軸으로 하는 今後 소련의 「아시아」政策의 方向을 提示한 73.8.24日字 「프라우다」紙의 社說要旨

- 緊張緩和, 平和共存의 方向은 全世界에 擴大하는 것은 現在 소련 外交의 中心課題이다.
- 「레닌」以來 「아시아」諸國民과의 友好의 傳統을 一貫해서 堅持해온 소련은 「아시아」가 平和의 法則에 따라 살 수 있으며 또 살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한 現實的인 方法은 集團安全保障體制임을 確信한다.
- 「아시아」集團安保體制 構想을 展開하면서 소련의 指導部는 다음과 같은 簡明한 原則을 내세우고 있다.
「아시아」의 모든 國家間의 恒久的이고 基本的인 關係는 平和共存과 善隣의 原則에 立脚하도록 促進시켜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國家間의 武力行使의 拒否, 主權과 國境不可侵의 尊重, 內政不干渉, 互惠, 平等에

立脚한 広範圍한 經濟協力の 發展을 要求한다. 또한 「아시아」에 있어서의 集團安保는 各民族이 自己의 運命을 自己가 決定하고 侵略에 依한 領土의 取得을 不許하며 國家間의 紛爭을 平和的인 手段으로 解決하고 自國의 天然資源을 主張할 權利를 確保하고 社會, 經濟改革의 權利를 尊重하는 諸原則을 明確히 認識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 越南戰의 終戰, 「라오스」 和平, 인도아대륙의 正常化, 北朝鮮의 主導에 依한 朝鮮統一의 氣運等, 最近 「아시아」情勢는 好轉되고 있으며 더욱기 소련과 日本과의 關係의 本質的인 改善, 平和的 正常化의 完成, 經濟協力の 增進은 「아시아」 平和에 一旦 貢獻할 것이다.
- 中共指導部는 한때 소련과 함께 集團安保를 提唱한 事實을 잇은듯이 이 構想의 目的이 中共을 “封鎖” 또는 “包圍”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소련은 中共을 包含한 모든 「아시아」 國家들이 參加해야 한다고 累次 言明한 바 있다.
- 「아시아」 集團安全保障은 「아시아」 諸國의 共同의 努力을 要請하고 있으며 「아시아」 各國이 이의 實現에 寄與하지 않으면 안된다.

小結論 (特徵)

- 初期段階에서는 中·소兩國의 共同提携에 依해 同構想이

이 제창되어 왔으나 中·蘇紛爭이 表面化·激化된 단계에서는 同構想에 대한 提唱은 蘇聯側 一方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왔다.

- 中共의 同構想에 對한 決死的인 反對는 同構想을 表現시키는데 있어서 致命的인 打擊이 되고 있다.
- 蘇聯은 1954年 同構想은 처음 提唱한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同構想이 既存 地域協力 體制나 既存 쌍무 또는 地域防衛體制와 어떤 關係에 있는가(排除나 共存이나?)에 關해서는 明確한 回答을 意識적으로 回避하고 있다.

3. 同構想의 參與國家 範圍問題

期畧가 있을때 마다 蘇聯은 「아시아」國家들이 아무런 例外없이 대등한 資格으로 集團安保體制에 參與하기를 바란다 라고 言明하고 있으나 分斷國의 參與問題에 對해서는 明確한 態度表明을 하지 않고 있음. 卽, 蘇聯이 말하는 "國家"에는 韓國과 越南을 包含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하는 問題가 提起됨.

가. 肯定的인 事實(分斷國의 雙方의 參與를 의도하고 있다.)

- (1)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 構想은 「아시아」의 現國境線의 固定化를 核心으로 하고 있음으로 分斷國의 現休戰線 問題를 處理함에는 分斷國 雙方의 參與가 不可避하다.

- (2) 蘇聯은 最近 韓國의 門戶開放政策에 好意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다. 卽, 지난 5月 演劇人 유덕영씨에게 첫 「비자」를 發給한데 이어 「유니버시아드」 韓國選手團의 入國을 許容.
- (3) 北韓과 越盟이 同構想에 對하여 積極的인 態度를 表示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소련이 韓國과 越盟을 同構想에 參與시키려는 意圖에 對한 反動로 解釋될 수 있음.
- (4) 蘇聯은 韓國의 6. 23 宣言에 對하여 公式的인 反對를 回避하고 있다.
이것은 蘇聯이 南·北韓의 「유엔」 同時加入을 支持하고 있는데 起因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됨.
- (5) 蘇聯의 南北韓의 「유엔」 同時加入支持는 韓國과의 外交關係를 樹立한 意圖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否定的인 事實 (韓國과 越南을 排除하고 있다)

- (1) 同構想은 中共의 強力한 挑戰에 直面하고 있으며 韓國과 越南을 排除하지 않는다면 北韓과 越盟의 支持를 獲得할수 없다.
- (2) 蘇聯은 同構想을 積極 推進하고 있으면서도 北韓과 越盟에 對해서는 同構想을 내리먹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同構想이 分斷國問題에 對해서는 아직 說得力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 (3) 지난 6월 日本을 訪問한 「푸라우다」紙의 政治評論家

「마에프스키」는 日本 「마이니저」新聞社の「다카하. 다케히코」論說委員과의 對談에서 “分斷國은 現狀總인체로 同構想에 참여하게 되는것인가?”라는 質問을 받고 “蘇聯은 中共, 越盟, 北韓의 存在밖에 認定하지 않고 있다”고 答辯함.

- (4) 蘇聯의 韓國과의 外交關係樹立은 現在 駐韓美軍의 撤收가 대전체로 되어 있다. 그런데 現在 駐韓美軍의 撤收可能性은 없다.

小 結 論

- 現段階에서는 「아시아」集團安保体制에 參加하는 範圍는 蘇聯과 外交關係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이 點에 對한 蘇聯의 公式論評이 없고, 最近 蘇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유연성으로 보아 이번에 開催된 「유엔」總會의 結果와 「아시아」情勢의 趨移過程의 어떠함에 따라서는 變化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展望됨.

4. 同構想의 애매모호성에 對한 各國의 反應

現在 日本을 비롯한 「아시아」諸國이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体制에 冷談한 反應을 보이고 있는 것은 同構想이 上記 二問題에 不透明한 態度를 取하고 있는데 起因되고 있으며 日本

의 反應은 이의 전형적인 例임.

가. 同構想에 對한 日本의 態도와 基本方針

日本政府는 「다나카」首相의 訪蘇를 앞두고 同構想이 「다나카·브레즈네프」會談의 主要議題의 하나로 될것으로 보고 同構想의 推進에 否定的이고 신중한 態度를 取하였음.

(1) 同構想의 非現實性을 指摘

- (가) 集團安保인 以上 모든 國家가 參與해야한다.
- (나) 「아시아」情勢는 歐洲와는 다르며 如前히 不安定하고 複雜한 狀態에 놓여 있으며 아직 時期가 成熟하지 않았다.
- (다) 同構想의 原則中의 하나가 “國境不可侵”으로 되어 있는 데도 北方領土는 未解決의 狀態에 놓여 있다.

(2) 基本方針의 樹立

日本政府는 「아시아」集團安保體制에의 參與條件으로 다음과 같은 4大條件을 提示하기로 하였음.

- (가) 北方領土問題와 平和條約締結이 먼저 解決되어야 한다.
- (나) 美·日安保條約을 비롯해서 其他 日本의 基本條約에 對하여 소련이 變更을 要求하지 않는다.
- (다) 中共이 參加해야 한다.
- (라) 美國이 參加할 것.

小結論 (日本의 態度가 意味하는 것)

- 北方領土의 返還을 考慮하여 소련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가 意圖하는 現國境線의 固定化를 警戒하고 있다.
- 中共을 크게 意識하고 있다.
- 蘇聯이 同構想을 통한 既存防衛體制의 排除의 可能性에 對해 最大의 警戒을 하고 있다.

參

- 지난 1月 施政方針演說에서 「다나카」首相이 中共과 越盟을 包含한 「아시아」·太平洋 諸國會談을 提唱한 것이나 지난 7月 「로저스」美國務長官이 日·美貿易經濟合同委員會에서 同構想到 對하여 깊은 關心을 表明한 것은 모두 이와 같은 「아시아」集團安保體制의 배타성을 意識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임.
- 美國이 「다나카」首相의 「아시아」·太平洋 諸國會談構想을 支持하는 것은 「아시아」集團安保體制의 이러한 性格을 勘案, 이에 對抗하는 地域協力機構로 만들려는 意圖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난 4月 「키신저」補佐官이 「새大西洋憲章」의 形成을 提唱한 것도 「유럽」의 歐洲安保協力會議과 「아

시아」의 蘇聯의 集團安保體制에 對抗하는 統合된 聯合勢力의 構築에 目的을 두고 있는 것으로 判斷됨.

나. 其他 「아시아」 諸國들의 態度

(1) 「말레지어」

(가) 「말레지어」는 蘇聯의 「아시아」 集團安保體制에 對하여, 基本的으로는 支持하고 있으면서도 積極的인 支持를 하지 않고 있음.

(나) 蘇聯은 72年 9月 「말레지어」의 「라자크」 首相의 訪蘇時 「말레지어」가 提案하고 있는 東南「아시아」 中立化構想을 支持한바 있음.

다. 北韓과 越盟

蘇聯의 「아시아」 集團安保體制構想到에 對하여 회의적이며 積極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지 않음.

小 結 論 (이들 國家의 反應이 意味하는 것

- 「말레지어」, 北韓, 越盟이 積極的인 支持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中共에 對한 配慮에 起因하는 것임.
- 特히 北韓, 越盟의 경우 同構想의 現狀固定的인 原則이 그들의 南下赤化統一政策에 背馳되고 있다는 點에 不滿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判斷됨.

5. 評 価

가. 蘇聯이 安全을 保障함에 있어서 核心이 되고 있는 問題에
처하여 曖昧모호한 態度를 取하고 있는 것은

- (1) 「아시아」 諸國의 反應을 銳意觀察하기 위한 時間을 必要로
하며
- (2) 蘇聯이 意圖하는 公國의 目標을 은폐하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原則만을 내세워 「아시아」 諸國이 同構想到에 反對할 根柢를
주지 않고 이들 國家를 보다 빨리, 広範圍하게 유인하기 위
한 意識的인 行爲라고 評價됨.

나. 同構想이 既存 地域協力体制나 쌍무 또는 地域協力 体制를 排
除하는 것이나 아니면 同時共存을 認定하는 것인가하는 問題
는 우리의 安保와도 直結되는 問題로서

- (1) 排除하려는 意圖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아시아」의
勢力均衡을 破壞하여 「아시아」의 平和와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結果가 될 것이며 蘇聯의 構想은 「아시아」 諸國의 反
境에 直而하여 水泡로 돌아갈 것임.
- (2) 既存 地域協力体制나 쌍무 또는 地域防衛体制와의 同時共存을
認定하는 境遇 同構想은 「아시아」 諸國의 호응을 얻어 實
現될 可能性이 濃厚함.

다. 「아시아」 諸國이 同構想到에 處하여 冷淡한 反應을 보이고 있
는 것은

- (1) 同構想이 上記와 같은 排他性을 內包하고 있지 않은가 하

는 共通的인 憂慮때문이며

- (2) 中共을 強하게 意識하고 있기 때문임.
- (3) 따라서 同構想의 不透明性和 中共의 強한 反應은 同構想을 實現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最大의 障礙가 되고 있음.

라. 同構想에서 본단국문제는 어떻게 處理하며 分斷國 雙方이 納得할 수 있는 방침을 어떻게 設定하는가 하는 問題를 놓고 蘇聯은 困境에 處해 있는 것으로 보임.

마. 지난 10. 7. 「다나카」수상의 訪蘇의 結果로서 發明된 日·蘇 共同聲明에서 「아시아」集團安保體制에 對한 言及이 欠如되고 主要 懸案 問題인 「平和條約締結」과 「北方領土問題」의 處理가 1974年으로 미루어진 것은 日本이 自國의 基本 方針을 強力하게 主張한데서 온 結果라고 評價됨.

바. 이런 點으로 미루어 보아 소련의 對「아시아」政策의 當극의 目標은 「아시아」에서 부터의 美軍의 撤退, SEATO, CENTO, 韓·美·蘇·日防衛條約등을 解消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戰略의 一環으로 「아시아」集團安保體制的 形成을 積極 推進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됨.